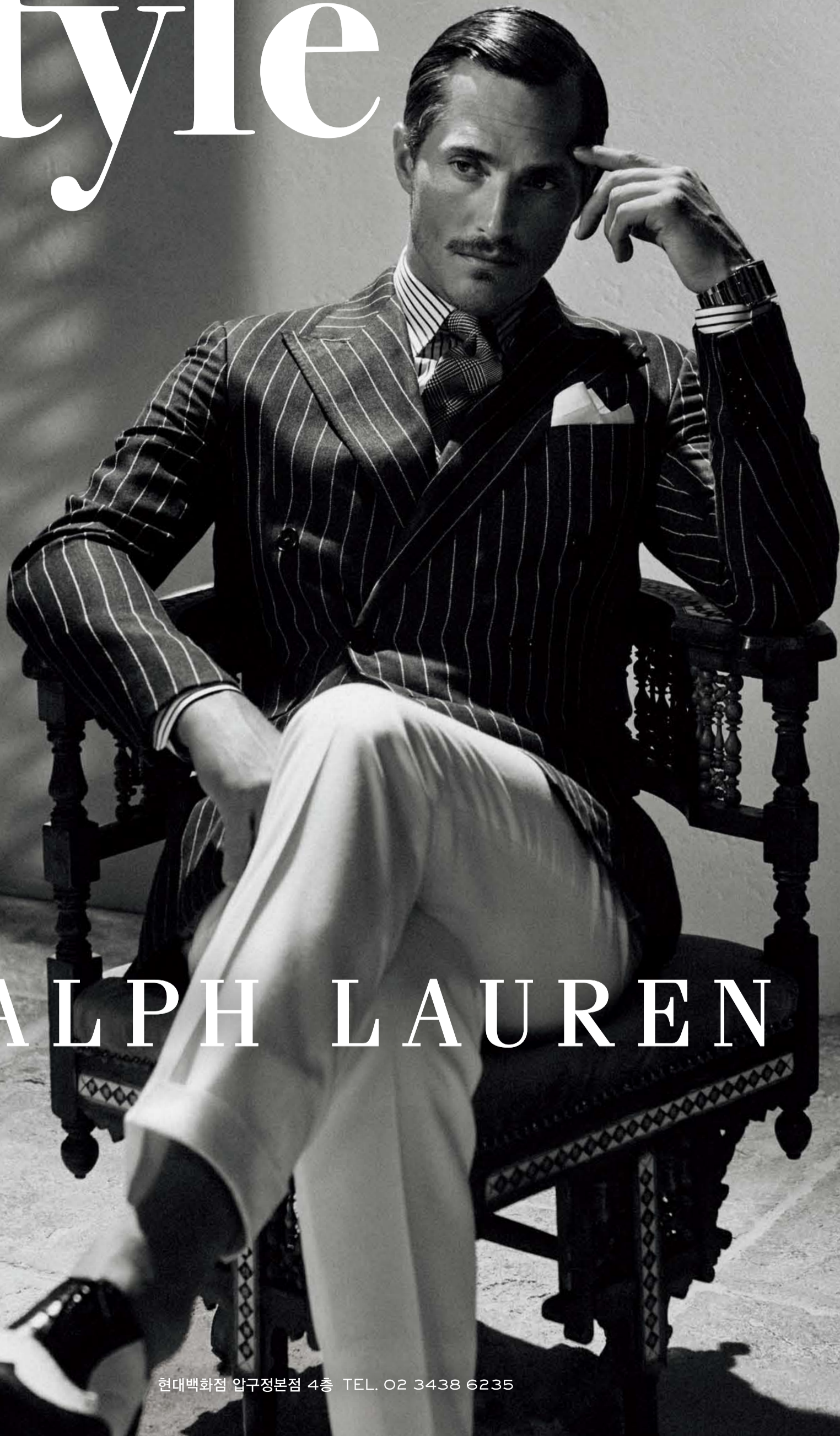


Style 1 조선일보

MAY 2021
vol.221



RALPH LAUREN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Frivole collection
Between the Finger Ring,
rose gold and diamonds.



SUBLIMAGE
LA COLLECTION LUMIÈRE

수블리마지 루미에르 컬렉션

피부 속 고귀한 광채를 되찾아주는 강력한 브라이팅

샤넬 수블리마지 루미에르 컬렉션은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의 강력한 활성 에너지에 안틸리스 추출물을 더하여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하고, 칙칙해진 피부를 화사하게 밝혀주어 고르고 맑은 피부 톤으로 가꾸어 줍니다. 궁극의 광채로 빛나는 피부를 경험하세요.



CHANEL

COLLECTION
Fifty Fathoms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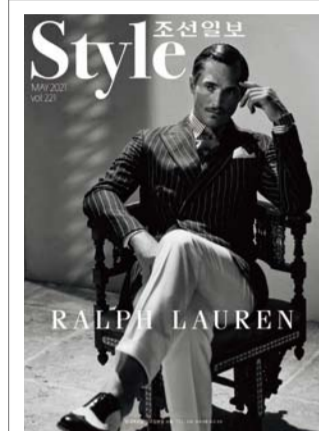
RAISE AWARENESS,
 TRANSMIT OUR PASSION,
 HELP PROTECT THE OCEAN

www.blancpain-ocean-commitment.com

블랑팡 직영부티크 ·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2층(02-3213-2261) · 신세계백화점 본점 B1층 (02-310-5295)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02-3479-1833)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층 (02-3467-8426)
 공식지정판매처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2층 드로어세클 (051-745-1350) · 롯데면세점 본점 11층 (02-759-6751)
 신라면세점 서울점 2층 (02-2230-3868) · 신라면세점 제주점 2층 (064-710-7345)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3층 (02-6288-0851) ·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9층 (02-6370-4083) · 현대면세점 8층 (02-2142-6126)



16 15



이 번 시 즌 알 프 로렌 라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을 되돌아본다. 그중에서도 모리셔스 라인은 젊은 이혼가니 숲의 웅장함과 열대우림 동식물의 육감적인 절라에서 영감을 받아 아름다운 컬러 대 비를 강조했다. 투박한 실크 라넨 트윈드, 고급스 러운 실크 실크, 트로피칼 울 크레이프 등의 자연스 러운 질감도 엿스란다. 문의 02-6004-0133



26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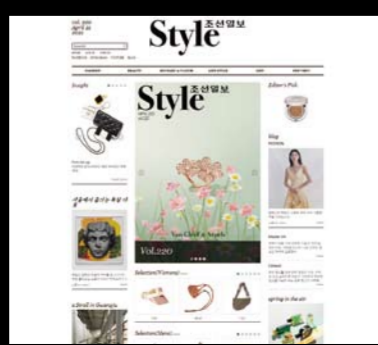
- 15 **THE HOUSE &...** '최대한의 삶이 최대 선이라는 수삭아가 있을 만 큼 애-자가 풍부했던 1세기 전의 빛의 도시 파리. 그곳을 주 무대로 삼던 세기의 크리에이터 4인의 창조 혼이 담긴 빈티지 가구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사람과 우정 어린 창조적 협업을 펼친 가장 4인의 이야기와 녹아든 작품을 선보여 컬렉터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 16 **메세-와 '아케팅'(ARTKETING)' 사이에서** 민관이 협업하거나 아 예 기업에서 문화 예술 플랫폼을 꾸리는 풍경은 파나나 서울이나 마 친가지로 상상할게 눈에 띈다. 아니, '다이나믹 코리아답게 요즘 우 리나라에서 이런 움직임은 더 활발한 듯도 하다. 더구나 일찍이 예술 의 지위를 갈구해온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에 한정된 행보도 아니다. 도시 곳곳을 수놓고 있는 '공간의 예술화' 붐을 들여다본다.
- 19 **ONCE UPON A BAG** 5월 22일부터 6월 6일까지 성수동 디뮤지 엄에서는 <에르메스, 가방 이야기>가 개최된다. 아카이브부터 오늘 날의 컬렉션까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에르메스 헤리티지의 네 번 째 시리즈다.
- 20 **THE LEGACY CONTINUES**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프로페 셉셜 마스터 크로노미터.
- 22 **2021 WATCHES & WONDERS** 코로나19의 대응행으로 지 난해 처음 디지털 플랫폼 형식으로 진행된 워치스 & 윈더스. 올 해까지 이어진 팬데이 상황 속에서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을 통해 개최됐다. 약간의 아쉬움을 느낀 것도 잠시,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단정한 웹사이트 (watchesandwonders.com) 덕분에 실시간 스트리밍과 채팅을 통한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비록 제품을 직접 만지고 착용해볼 수 는 없었지만, 신선한 방식으로 세계 유수의 워치메이커가 선보인 신 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던 2021 워치스 & 윈더스, <스타일 조선일보> 가 주목한 브랜드별 주요 모델을 소개한다.
- 26 **A DREAM GIRL** 5월의 싱그러움과 함께하는 꿈결 같은 리조트 룩 제안.
- 34 **GIFT IDEAS** 가정의 달 5월, 주고받는 모든 이의 마음을 빛내줄 스페셜 기프트 리스트.
- 42 **FOR HER, FOR HIM** 캔템퍼러리 감성을 기반으로 우아하고 세련 된 룩을 선보이는 폴스튜디오와 클래식한 남성용 위한 토털 라이프 스타일 편집숍 품앤즈라운지가 제안하는 5월 기프트 컬렉션.
- 43 **RADIANCE TREAT** 5월의 따사로운 봄볕만큼이나 투명하고 눈부 신 피부로 가꿔주는 수블라미지 루미에르 컬렉션.
- 44 **ALL YOUR FAMILY** 온 가족이 함께 마시는 완전한 단백질. 하루 한 컵으로 간편하게 면역을 챙기는 방법이다.
- 46 **EDITOR'S PICK** 부쩍 건조해지고 기온이 높아진 날씨에 더없이 적 합한 이달의 뷰티템.

Style 조선일보

Issue.221 May 2021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l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찾아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시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시시오. stylechosun.com

문의. 02.3480.0104



DIOR

GEM DIOR COLLECTION
 Yellow gold, diamonds and ornamental stones.



5월의 장미

이 아름다운 계절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줄 장미 향수 3.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랑시 뷰티 아레지타블 오드 퍼퓸 롬온 루셔스** 로지 향을 중심으로 프루티한 페어와 알베르트 향의 풍부한 플로럴 향을 풍기다 친한 시더우드와 마스크 향기로 마무리되는 교묘적인 향기. 롬온 타입으로 휴대하기 쉬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향을 얻을 수 있다. 20ml 4만4천원대. 문의 080-801-9500
일요인 더 리퀴 컬렉션 로즈 온 아이스 차갑고 날카로운 진을 연상시키는 향. 시원한 아쿠아틱 노트와 향나무 열매의 아로마틱하고 묵직한 매력이 대조를 이루고, 야기 관능적인 로즈 샌들플라어 어코드가 색다른 느낌을 더해준다. 아이자는 샌들우드와 마스크가 매혹적인 진함을 남긴다. 50ml 27만원대. 문의 02-3440-2911
에어린 로즈 드 그라스 무르 뒤 핏셋에 반짝이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향기. 시클라멘과 프리지아, 베르가모트와 페어 향이 어우러진 싱그러움 플로럴 향을 시작으로 신선한 장미 향과 오렌지 플라워의 조화가 향을 한층 풍성하게 하며, 마스크 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30ml 11만5천원대. 문의 02-6971-3212
포드그래피 최민영 에디터 아이유 어시스턴트 배사현

“나에게 디자인은 패션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정교한 로맨스 세계를 만들어어나가는 것이다. 2021 S/S 컬렉션은 이런 나의 신념을 바탕으로 현대적이면서 클래식하고, 동시에 자극히 개인적인 스타일을 표현하고자 했다.”
 _by 랄프 로렌



2021년 4월 10일 09:00 02-8004-0133

MY NEW WISHLIST

생 로랑의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리브 드와'는 오직 파리와 LA 리브 드와 스토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굿 뉴스를 전하라면 4월 30일 서울에 문을 연 생 로랑 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일부 제품을 소개한다. 기능성을 겸비한 스포츠 기어지만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심각하게 예쁘다'. 테니스 라켓과 테니스 볼 가격 미정. 문의 02-549-5741

예술을 바르다

프레스티지 스키케어 브랜드 데코르테와 디자인 가장 미로셀 반더스, 그리고 프리미엄 크리스털 브랜드 바카라. 각 장르의 최고들이 뭉쳤다. 세 브랜드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데코르테 AQ 말리오리티 인텐스브 크림 바카라 에디션은 미로셀 반더스의 터치가 든 유려한 바카라 크리스털 케이스에 바카라를 상징하는 레드 옥타곤 크리스털을 매치해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눈부신 이오브재에는 300여 가지 엄선한 성분은 이상적으로 조합해 주름과 광채 개선에 탁월한 인텐스브 크림을 담았다. 전 세계 9백99개, 국내에서는 17점 한정 선보인다. 100g 용량의 크림 2개, 바카라 크리스털 스탠드와 스파츨러로 구성된다. 6만20만원대. 문의 080-568-3111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SPRING FLAT

발목에 볼 향기를 담았다. 스커트와 팬츠 모두에 잘 어울리는 2021 S/S 플랫폼 슈즈. (위부터) 투톤 카브 스킨 플랫폼 슈즈 가격 미정 사들. 문의 080-200-2700. channel.com. 양귀족 비바 슈즈 85만원 **살비토레 페라기오**. 문의 02-3430-7854. 홀스비 디테일의 올 체크 슈즈 1백만원 **구찌**. 문의 02-3452-1921 **포드그래피 최민영 에디터 장리윤 어시스턴트 배사현**

FLOWER ON THE GORGEOUS

리베르스 탄생 9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인 리베르스 원 프레시스 플라워 컬렉션에서는 파인 워치메이커로서 예거 르콜트르의 기술력과 예술성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머더오브펠 다이얼 케이스를 화려한 다이아몬드와 황형색 에나멜 장식을 수놓은 화려한 백 다이얼이 모습을 드러낸다. 문자 그대로 메테에 이르러 정인들이 한뼘 한뼘 새긴 이 로맨틱한 피스는 찬란히 빛나는 영원한 꽃을 손에 품은 듯한 기분을 지어낸다. 은은한 광택이 도는 옐리케이터 가죽 스트랩으로 우아하게 마무리했다. 화이트 다이얼, 퍼플 이블, 핑크 이블, 블루 이블 등 네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각각 10피스 한정 출시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449-5912



FEEL SO GOOD

프랑스의 리베라 해변처럼 눈부신 햇살과 삶의 즐거움을 담은 프레드리의 리베라 퍼넌트. 옐로와 핑크 골드 비에 휴양지의 즐거운 일상을 워트 있게 새겨 넣었다. 문의 02-514-3721



여름을 준비하는 자세

휴대가 간편한 100ml 사이즈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하는 코코 마드모아젤의 여름 스킨케어. 그중 코코 마드모아젤 로(EAU)는 헤어와 보디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미스트로 프레이그런스 미스트처럼 가볍고 은은한 향을 남긴다. 100ml 13만원. 사들 문의 080-332-2700

EXHIBITION



막으로 시작해 대체로운 영상과 퍼포먼스 영상으로 이뤄진 전시는 연극적인 서사 구조와 공간 연출이 사뭇 인상적이다. 감수자, 문성식, 카라 워커, 폴 매카시 등 다국적 참여 작가들도 눈길을 끈다. 행사 자체가 하나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창작 방식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현대무용가, 배우, 음악가 등이 참여하는 라이브 퍼포먼스를 전시 기간(6월 13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한다(매일 필수). 문의 02-460-4850

지구촌 문화 예술계의 키워드 중 하나인 다원 예술의 흥미로운 면모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가 서울 대외로 아크로미술관에서 지난 4월 말 막을 올렸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시간을 공존하면서 서 5개의 사사를 조형적으로 해석하고 담아낸 <그 가운데 땅: 시간이 펼쳐져 땅이 되었다>는 기획전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 올해 새 예술 창작 산실 우수 전시 지원 선정작으로 독립 큐레이터 전민경이 기획한 이 전시의 의미심장한 전시 제목은 현지의 제왕으로 잘 알려진 판지 문학의 가장 J. R. R. 톨킨의 차쿠에 등장하는 중간계(Middle Land)에서 따왔다. 절대의 유혹으로 소용하는 중간계의 역사가 곧 인간의 역사를 반영한다는 맥락을 품고 있는데, 우리네 삶의 타자에 새겨진 작은 역사에 선과 악이 얽혀 있는 복잡다단한 서사, 그 주제적인 다루고자 했다고. 빛과 시공으로 구성된 추상적인 도시 풍경이 길쭉한 1



레이브 031 OPT 안경 30만원 **젠들몬스터.**

키프와 램 레더 소재 핸드백 1백49만원 **살만느 옴므 바이 에디 슬라만.**

체인 브레이슬릿 54만원 **오프화이트.**

메트 라커 소재의 피플 샌들 65만원 **보테가 베네타.**

베네토를 55만원 **유희고브스.**

화이트 히트 팬츠 1백70만원 **발렌티노.**

for him Selection

세련되면서도 청량한 느낌을 자아내는 남자들의 화이트 & 골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kim sa yun**



무선 스마트 헤드폰 83만원 **몽블랑.**



LV 범용 반지 세트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세라믹 소재의 알갱이 외관이 특징인 J12 화이트 워치 가격 미정 **샤넬 워치.**

브라스 소재의 아이링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베제 블레 오드 퍼퐁 50ml 12만16만원 **카르띠에.**

GG 엠보스 백, 23X19cm, 1백99만원 **구찌.**

화이트 라지 백, 36X27cm, 가격 미정 **처치스.**

밴딩 디테일의 스니커즈 97만원 **에르메네켈도 제너.**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발렌티노** 02-2015-4653
보테가 베네타 02-3438-7801 **구찌** 02-34521-921
루이 비통 02-3432-1854 **유희고브스** 02-515-4088
젠들몬스터 1600-2126 **오프화이트** 02-5177-572 **살만느** 02-549-6631
몽블랑 1670-4810 **카르띠에** 1566-7277 **처치스** 02-321-85331
에르메네켈도 제너 02-518-0285 **샤넬 워치** 080-200-2700, **chanel.com**



the House &...

‘최대한의 삶이 최대 선이라는 수식어가 있을 만큼 에너지가 풍부했던 1세기 전의 빛의 도시 파리. 그곳을 주무대로 삼던 세기의 크리에이터 4인의 창조 혼이 담긴 빈티지 가구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오는 5월 11일부터 서울 압구정 로데오에 문을 여는 갤러리 L, 993이 마련한 개관전 <Jean Prouvé: The House | Charlotte Perriand, Pierre Jeanneret, Le Corbusier>. 사랑과 우정 어린 창조적 협업을 펼친 거장 4인의 이야기가 녹아든 작품을 선보여 컬렉터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시간 여행이 가능하면 전장의 포화현장은 되도록 피해 하겠지만 그래도 20세기 초반의 프랑스 파리는 꼭 구경해보고 싶은 곳이다. 두 번의 세계대전 소용돌이 속에서도 낭만과 혁신으로 가득찬 찬란한 시절을 일궈낸 문화 예술계의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다면 잠자던 세파도 깨어날 것 같아이다. 1920년대대로 따지다가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 영화 <미드워잇 인 파리>도 바로 그런 상상에서 탄생했을 테고 말이다. 필자의 여행에서 마주치고 싶은 등장인물 목록은 꽤 다채롭고 방대하지만, 그중에서도 세계 디자인 역사에 홀미로운 한 획을 그은 몇몇 거장을 빼놓는다면 몹시 애석할 듯하다. 여기에는 근대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의 스튜디오팀에서 동행했던 샤를 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 1903~1999)과 피에르 잔느레(Pierre Jeanneret, 1896~1967) 등 3인방을 비롯해 그들과 창조적 협업을 펼쳤던 또 다른 거목 장 프루베(Jean Prouvé, 1901~1984)도 당연히 포함된다. 마침 20세기 가장 훌륭한 이들 크리에이터 4인의 자취가 담긴 빈티지 가구 전시가 서울에서 열려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압구정 로데오에 자리한 이 갤러리 브랜드 헌디 베글린 플래그십 매장에 새로 문을 연 갤러리 L, 993에서 마련한 개관전 <Jean Prouvé: The House | Charlotte Perriand, Pierre Jeanneret, Le Corbusier>.

따로 또 같이, 20세기 거장들의 창조적 협업사
장 프루베, 샤를로트 페리앙, 피에르 잔느레, 르 코르뷔지에. 이들 4인의 작품을 한데 모은 전시의 미학은 관계의 역학이라는 스토리텔링에 있다. 결국 인조와 인조이 만나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빛어내는 관계사에서 비롯된 창조적 결실이 역사를 찬란하게 수놓아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일 것이다. 1903년생으로 거의 1세기를 산 페리앙은 모더니즘에 매혹된 당찬 젊은 파퓰러 시집, 스위스 출신이지만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한 당대 최고의 모더니스트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를 찾아오다가 여기는 쿠선에 수놓는 데가 아니라더 퇴짜를 맞았다. 그러다가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르 코르뷔지에가 다시 일 자리를 제안하면서 그의 사촌인 피에르 잔느레까지 셋이 뭉친 후 10년에 걸쳐 동행한다. 지금은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카사니에서 대부분 제작하는 이른바 LC 시리즈도 당시 셋의 협업으로 탄생한 수작이다. 그러나 페리앙은 셋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어렸던 여성 크리에이터였기에 생전에는 대체로 존재감이 크지 않았고, 점차 기어올라오는 인정을 따라가던 뒤에도 그가 손을 내밀면 협업을 했고, 일본, 인도차이나 반도 등 지구촌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쌓다 가 디자인·건축업 외에도 다른 선구자 장 프루베와도 파트너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피에르 잔느레 역시 ‘사촌 형’의 그녀가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성세함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역량의 소유자다. 그는 르 코르뷔지에와 인도 찬디카르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함께 세웠고 장 프루베, 동료이자 한때 연인이기도 했던 페리앙과도 협업했으며, 실용적이면서도 미적인 완성도를 추구한 자선인의 디자인을 다수 남겼다. 피에르 잔느레와 페리앙, 장 프루베는 기능과 미를 결합시키려는 철학을 추구하는 프랑스 현대 예술가 연맹(The Union of Modern Artists)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다.

파스한 손길이 깃든 하나의 집을 펼쳐놓은 듯한 공간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실용주의 디자인의 대가 장 프루베를 상징하는 작품 중 하나인 조립식 주택 ‘6X6 Demountable House’(1944~1945년으로 추정)이다. 레지스탈스로 활용하고 자신의 정서적 교향인 프랑스 낭시(Nancy)의 시정촌을 잠시 맡기도 했던 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집 잃은 유랑민들을 위해 살려낸 이 획기적인 주택은 당시 여러 시아조로 4백 채 정도 지어졌는데(대다수가 망가졌다), 자비함에 조림, 해체가 용이해 오늘날에도 유목 건축의 연구 자료로 활용될 만큼 가치 있는 작품이다. 지하에 자리한 전시장에서 나무 벽 틈으로 스며든 빛이 만들어내는 찬란한 무늬가 은근한 울림을 주는 이 집 인공으로는 장 프루베의 자녀 세대가 소유했던 책상(Cie)을 비롯해 ‘프루베 책상’, 의자, 램프 등 경쾌하나 무법한 품목들이 존재함을 뽐낸다. 이 밖에 페리앙이 스텝 사탕 갤러리와 이틀리에 장 프루베와 손잡고 만든 수조로 여러 색조의 배합이 시선을 사로잡는 1950년대산 책꽂이 ‘뉴아주(Nuage)’, 르 코르뷔지에와



1 오는 5월 11일부터 서울 압구정 로데오에 새로 문을 여는 갤러리 L, 993이 마련한 개관전 <Jean Prouvé: The House | Charlotte Perriand, Pierre Jeanneret, Le Corbusier>가 열린다(6월 11일까지). 20세기를 찬란하게 수놓은 크리에이터 4인의 열정이 깃든 작업과 우정 어린 협업의 결실을 볼 수 있는 빈티지 가구 전시로, 르 코르뷔지에가 기술 자문을 받았던 했던 실용주의 디자인의 대가 장 프루베가 전후 유랑민들을 위해 설계한 목조 조립식 주택을 비롯해 희소치 있는 다양한 가구 18점을 선보인다. 지하 전시장은 물론 1층 카페에서도 전시 품목은 아니지만 여러 작품과 오브제를 볼 수 있다. 2 책이나 잡지, 소용울 놓아둘 수 있는 피에르 잔느레의 수납장 5X4 Periodical Bibliotheque(1960~1961)와 티크 소재 의자 Early Edition Office Chair(1955~1956). 3 금속의 사인미라고 불리기도 했던 장 프루베가 디자인한 Rare Demountable Chair(1952년으로 추정)와 Rare Polency Lamp(1949). 4 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르 코르뷔지에와 그의 스튜디오팀에서 일한 인연으로 많은 협업을 했던 샤를로트 페리앙이 함께 작업한 코트 땡어 Porte-manteau(1955년으로 추정). 1~4 © 2021 Gallery L, 993. All Rights Reserved.

의 협업으로 탄생한 코트 땡어(‘Porte-manteau’, 1955년으로 추정), 피에르 잔느레가 인도 찬디카르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역적 티크(teak) 목재 등을 반영해 만든 의자(Early Edition Office Chair)와 책상 등 빈티지 가구 애호가라면 환호할 만한 명품 가구를 실물로 볼 수 있다(전시 품은 대부분 구매 가능). 또 1층에 자리한 카페를 긴 공간에서는 잔치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작품들도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Gallery L, 993 강남구 선릉로 153길 22 헌디 베글린 로데오 플래그십 스토어에서(1층, 사전 예약 필수)에(비) 예약전과 전회). 문의 02-511-1993 **코고성연**

메세나와 '아케팅(artketing)' 사이에서

4년 전쯤 파리 몽파르나스에서 기업의 후원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독립 큐레이터를 만난 적이 있다. “지난 10여 년에 걸쳐 프라이빗 섹터의 미술 후원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자금 지원은 공공 영역으로 옮겨졌는데...” 20세기 초 러시아 출신의 큐비즘 화가가 작업을 하면서 가난한 이웃과 동료 예술가에게 따뜻한 먹거리를 제공했던 유서 깊은 명소였는데, 건물 자체는 파리에 속하지만 후원은 기업, 단체 등이 맡고, 수혜 대상은 다국적 예술가나 연구자라고 했다. 이처럼 민관이 협업하거나 아예 기업에서 문화 예술 플랫폼을 꾸리는 풍경은 파리나 서울이나 마찬가지로 심심찮게 눈에 띈다. 아니, 다이내믹 코리아답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움직임은 더 활발한 듯도 하다. 더구나 일찍이 예술의 지위를 갈구해온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에 한정된 행보도 아니다. 도시 곳곳을 수놓고 있는 '공간의 예술화' 붐을 들여다본다.



#공간에 문화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는 기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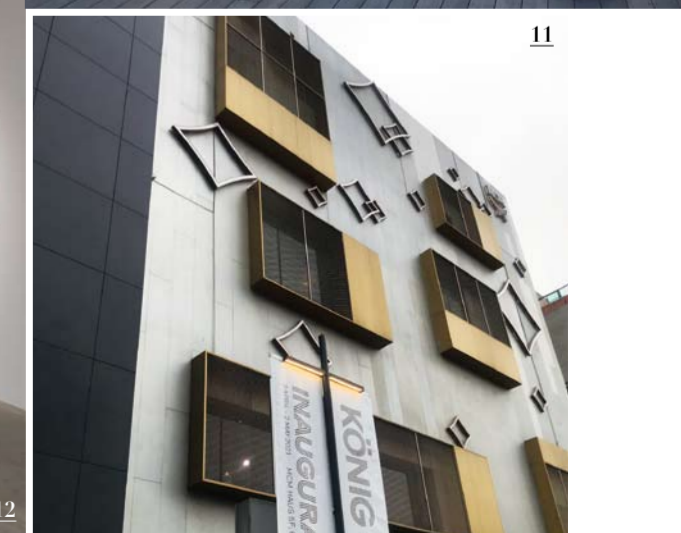
전형적인 오피스 타운에 작은 공인 터가 나오면서 청신한 녹음을 배경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지상 2층짜리 건물이 시야에 들어온다. 지면 위로 살짝 등글게 솟은 잔디밭과 궤를 같이 하듯 낮고 우아한 아치를 품은, 그래서 빌딩 숲 사이에서 숨을 터주는 듯한 이 건축물의 정체는 지난해 가을 문을 연 '스페이스K 서울'이라는 코오롱그룹의 문화 예술 공간. 이 동네에 처음 가본 이들이라면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인상에 호감 지수를 보낼 만한 공간이다. 2014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조민석(메스 터디스 대표) 건축가가 설계를 맡아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떠나고 야외 공원에서도 소통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실제로 '핫플로 소문'이 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시를 보러 오는 인파로 꽤 북적거린다. 현재 큐비즘 미국 아티스트로

강렬한 색감에 불안과 긴장이 흐르는 구성으로 독특한 회화 세계를 표현해온 헤르만 바스(Herman Bas)의 개인전 <모험, 나의 선택(Choose Your Own Adventure)>이 열리고 있는데, 신작을 포함해 작가의 면면을 시기별로 살펴볼 수 있다. 오는 7월계 막을 올릴 다음 전시 역시 세계적인 아티스트 라이언 갠더(Ryan Gander)의 개인전으로, 전시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아도 라인업이 탄탄해 보인다. 코오롱그룹은 이미 1998년부터 문화 예술 분야의 후원 활동을 다각도로 펼쳐왔는데, 스페이스K 서울의 경우에는 시민을 위한 '선물' 형태로 기획됐다.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울 서남부 지역을 위해 시에 기부 채납하지만 앞으로 20년 동안은 코오롱그룹에서 운영을 맡는 식이다. 2014년 파리 서쪽 끝자락 불로뉴 숲에 들어선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도 50년 뒤에는 파리 시민에게 선사한다는 공약과 함께 베세나적인 의지를 강조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지구촌에 무법자처럼 찾아온 코로나19 탓에 대대적인 오픈 파티를 하지 못했던 스페이스K 서울처럼 지난해 조용히 문을 연 또 다른 문화 예술 공간이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수그룹 본사 사옥에 자리 잡은 '스페이스 이수'. 광주비엔날레 김신정 대표가 남편인 이수그룹 감성변 회장과 뜻을 맞춰 약 495㎡(1백50여 평)의 1층 로비를 누구에게나 개방된 전시 플랫폼으로 탈바꿈시켰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비영리 성격의 예술 기획 단체 '사무소'에서 기획을 맡았는데, 현대미술만이 아니라 공예, 인테리어처럼 일상과 맞닿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소개한다는 방향성을 세워왔다.

얼마 전 시작한 세 번째 전시의 주인공도 한지를 재해석하는 현대적인 작업으로 알려진 조명 작가 권중모다.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이수 에디션'을 비롯해 간결하면서도 서정성이 엿보이는 그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 <라이트 하우스(Light House)> 전시 말고도 스페이스 이수에서 가면 '빛의 예술'가로 꼽히는 현대미술 거장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영구 설치 작품과 메리 코스(Mary Corse)의 회화 작품 등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독일이라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현대미술 화랑을 플래그십 매장에 들여놓은 MCM의 사례도 흥미롭다. 1976년 독일 뮌헨에서 탄생했지만 한국 기업이 인수해 키운 글로벌 패션 브랜드 MCM은 베를린을 주 무대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괴니(König)와 손잡고 청담동 플래그십 매장에 서울 지점을 개설했다. 로열층인 5층과 '조각 정원'이 있는 옥상까지 접합한 괴니 서울에 가려면 MCM 매장을 통과해야 한다. 예술 후원이라는 취지도 잡고, 모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지만 나름 '통 큰' 행보가 아닐 수 없다. MCM 하우스 바로 옆에 자리한 명품 브랜드 헨리 베글린도 최근 매장 건물에 미 스페이스(ME space)라는 갤러리를 열어 <세계의 시선>이라는 개관전을 펼쳤고, 로데오 거리에 위치한 다른 건물에도 L. 993이라는 전시 공간을 열었다.

#공간의 예술화, 예술의 공간화 현상

사실 '브랜드'를 거느린 기업 차원에서 문화 예술을 주 무기로 한 마케팅 전략인 '아케팅(artketing)'에 나서는 움직임은 이미 유행 수준이 아니라 '뉴노멀'처럼 자리 잡았다. 특히 내로라하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에는 절대 명제나 다름없다. 동시대의 혁신적인 감성을 덧입히는 동시에 영연성과 차별성을 추구하기에 예술만큼 탁월한 키워드가 있을 리 없다. 그래서 경영학계에서는 럭셔리 기업들의 '예술화(artification)' 수준을 단계별로 나누어 평가하기도 한다. 반면 미학적 경험이나 취향이 특정 계층의 소유임을 용인할 수 없는 대중도 예술을 갈구한다. 이에 발맞추듯 고급 문화든 하위 문화든 위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고 말이다.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 같은 비평가들은 "옛 산업 세계가 거친 말투로 군림했다면 현재의 자본주의는 진화해서 문화적 얼굴로 바뀌었다고 꼬집으며 다양성, 창조성, 포용성 같은 단어로 대중을 현혹해 물질적 불평등이라는 진실을 가리키고 일갈하고 있지만 말이다. 아꼈거나 이미 예술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는 예술의 상품화, 그리고 상품을 예술적인 희소가지와 창의성으로 무장시키고 차별화하는 '상품의 예술화' 현상은 점점 더 깊어 우리 생태계에 스며들고 있다. 나아가 체험 경제가 키워드인 21세기에는 '공간의 예술화, 예술의 공간화'로도 설



1 지난해 가을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문을 연 코오롱그룹의 문화 예술 공간 '스페이스 서울'. 서울 시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20년간 코오롱그룹에서 운영하는 이 공간은 곡선과 층의 미학을 살려 주변과 스물하트자라는 조민석 건축가의 설계로 지었다. 2 현재 쿠팡에 미국 작가이며 특유의 색감과 감성이 돋보이는 회화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헤르만 바스(Herman Bas)의 개인전 <모험, 나의 선택(Choose Your Own Adventure)>이 열리고 있다(5월 27일까지). 3, 4 이번 전시에는 헤르만 바스의 신작을 포함해 20여 점이 나왔다. 작가의 면면을 시기별로 엮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작의 규모도 경이할 수 있다. 관람료 5천원(상인 기준). 1~4 Photo by SY Ko 5 이수그룹 본사 사옥 1층을 일상의 새로 보기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전시 공간으로 거듭 나게 한 '스페이스 이수'. 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주목받은 조명 작가 권중모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6월 11일까지). 6 스페이스 이수에서는 빛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2014년작 '라이트 하우스(Light House)'가 영구 설치돼 있다. 색이 바뀌는 영상적인 작업. 218x405x50cm © James Turrell, Courtesy Pace Gallery Photo by Florian Holzherr 7, 8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자리한 롯데뮤지엄에서는 김이브 드로잉의 대표 전 세계 팬들을 거느린 김장기 작가의 대규모 기획전 <장기>, 다이내믹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볼썽한 감독의 영화 <7선>, 넷플릭스 <7요한 이야기>, 마블 코믹스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해왔다. 9 최근 아트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브랜드 MCM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기 아티스트 생바티엔(@GMBYPFN)과 협업해 완성한 한정판 가방을 선보였다. 우의의 액세서리인 카펫, 카펫, 슬리퍼 등 삼바를 올 감성까지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다. 10 1976년 독일 뮌헨에서 탄생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 MCM은 베를린을 주축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독일 괴니 괴니(König)의 서울 지점 개관을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소통을 꾀하는 협업의 창구를 열어놓았다. 괴니 서울의 옥상에 있는 조각 정원 풍경. 에르빈 부름(Erwin Wurm)을 비롯해 괴니의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5층 전시 공간과 루프탑에서 감상할 수 있다. 11, 12 서울 청담동 MCM 하우스에 들어선 괴니 서울은 MCM 매장을 지나 올라 갈 수 있어 마케팅 사자가 기대된다.

2 현재 쿠팡에 미국 작가이며 특유의 색감과 감성이 돋보이는 회화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헤르만 바스(Herman Bas)의 개인전 <모험, 나의 선택(Choose Your Own Adventure)>이 열리고 있다(5월 27일까지). 3, 4 이번 전시에는 헤르만 바스의 신작을 포함해 20여 점이 나왔다. 작가의 면면을 시기별로 엮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작의 규모도 경이할 수 있다. 관람료 5천원(상인 기준). 1~4 Photo by SY Ko 5 이수그룹 본사 사옥 1층을 일상의 새로 보기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전시 공간으로 거듭 나게 한 '스페이스 이수'. 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주목받은 조명 작가 권중모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6월 11일까지). 6 스페이스 이수에서는 빛의 거장으로 일컬어지는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2014년작 '라이트 하우스(Light House)'가 영구 설치돼 있다. 색이 바뀌는 영상적인 작업. 218x405x50cm © James Turrell, Courtesy Pace Gallery Photo by Florian Holzherr 7, 8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자리한 롯데뮤지엄에서는 김이브 드로잉의 대표 전 세계 팬들을 거느린 김장기 작가의 대규모 기획전 <장기>, 다이내믹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볼썽한 감독의 영화 <7선>, 넷플릭스 <7요한 이야기>, 마블 코믹스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해왔다. 9 최근 아트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브랜드 MCM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기 아티스트 생바티엔(@GMBYPFN)과 협업해 완성한 한정판 가방을 선보였다. 우의의 액세서리인 카펫, 카펫, 슬리퍼 등 삼바를 올 감성까지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다. 10 1976년 독일 뮌헨에서 탄생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 MCM은 베를린을 주축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독일 괴니 괴니(König)의 서울 지점 개관을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소통을 꾀하는 협업의 창구를 열어놓았다. 괴니 서울의 옥상에 있는 조각 정원 풍경. 에르빈 부름(Erwin Wurm)을 비롯해 괴니의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5층 전시 공간과 루프탑에서 감상할 수 있다. 11, 12 서울 청담동 MCM 하우스에 들어선 괴니 서울은 MCM 매장을 지나 올라 갈 수 있어 마케팅 사자가 기대된다.

10 1976년 독일 뮌헨에서 탄생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 MCM은 베를린을 주축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독일 괴니 괴니(König)의 서울 지점 개관을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소통을 꾀하는 협업의 창구를 열어놓았다. 괴니 서울의 옥상에 있는 조각 정원 풍경. 에르빈 부름(Erwin Wurm)을 비롯해 괴니의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5층 전시 공간과 루프탑에서 감상할 수 있다. 11, 12 서울 청담동 MCM 하우스에 들어선 괴니 서울은 MCM 매장을 지나 올라 갈 수 있어 마케팅 사자가 기대된다.

11 최근 아트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브랜드 MCM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기 아티스트 생바티엔(@GMBYPFN)과 협업해 완성한 한정판 가방을 선보였다. 우의의 액세서리인 카펫, 카펫, 슬리퍼 등 삼바를 올 감성까지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다. 10 1976년 독일 뮌헨에서 탄생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 MCM은 베를린을 주축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독일 괴니 괴니(König)의 서울 지점 개관을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소통을 꾀하는 협업의 창구를 열어놓았다. 괴니 서울의 옥상에 있는 조각 정원 풍경. 에르빈 부름(Erwin Wurm)을 비롯해 괴니의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5층 전시 공간과 루프탑에서 감상할 수 있다. 11, 12 서울 청담동 MCM 하우스에 들어선 괴니 서울은 MCM 매장을 지나 올라 갈 수 있어 마케팅 사자가 기대된다.



명할 수 있겠다. 그것이 그 자체로 유기적인 예술 작품 같은 아트 스페이스든 갤러리인지 상점인지 모를 융합적 매장이든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디자인을 주 콘셉트로 삼아 부산에 연 모터스튜디오 같은 브랜드 체험관이든 말이다. 작품 한 점에 수백억 원 한다는 자코메타나 게르하르트 리히터 작품을 전시하는 아트 스페이스를 값비싼 플래그십 매장의 공간에 끼여 들어오는 창담동의 루이 비통 매장이나 요즘 트렌드세터들 사이에서 인기 높은 핫플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켈트몬스터의 하우스 도산은 매장이라는 공간의 예술화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하우스 도산 같은 경우는 지하까지 포함해 5층짜리 매장이 이 회사의 선글라스나 안경은 물론 향과 크림 등을 아우르는 뷰티 브랜드 멤버십과 디지털 브랜드 뉴레이크가 다 같이 입점해 있는데, 정작 안으로 들어가면 1층 라운지에는 그 어떤 상품도 보이지 않는다. 커다란 설치 작품이 마치 거친 공사 현장과도 같은 공간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을 뿐이다. 프레데리크 헤이만(Frederik Heyman)이라는 아티스트의 3D 작업물을 실제로 구현한 작품이란 다. 지하로 내려가면 디지털 아트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마치 예술품처럼 생긴 케이크나 빵을 전시품으로 진열해놓고 파는데, 오후에 가면 바게트 정도만 주문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소진된다. 남산의 명소로 자리 잡은 복합 문화 공간 피크닉(Piknic)과 손잡고 매장 1층을 전시 공간으로 꾸며 감각을 일깨우는 체험 위주의 아트를 선보이는 코오롱스포츠의 한남동 플래그십 매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학적 경험을 내세운이케팅인가, 메세나인가?
그런데 재미난 점은 명품이나 B2C 위주의 사업을 하는 소비재 기업이 아니라 상당수 B2B 기업들도 아케팅에 열심이

라는 사실이다. 코오롱그룹의 사업 분야를 보면 패션 부문이 있기는 하지만 소재, 건설, 환경, 부품, 제약 등 여러 업종 중 하나일 뿐이며, 이수그룹 역시 화학을 모태로 바이오, IT, 건설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하는 기업이다. 건설로 잘 알려진 대림그룹 역시 트렌드의 최전선에 나설 필요는 없는 듯 보인다. 그런데 대림그룹은 대림문화재단을 앞세워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을 시작으로 서울 통의동 대림미술관, 한남동 디지털아트(올해 성수동에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과 프로젝트 스페이스 등을 운영하는 등 아케팅에 누구 못지않게 매진해왔다. 이들 기업의 열정적인 행보를 가려져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에 보탬이 되는 사회 공헌이나 메세나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사실 메세나의 역사를 훑어보노라면 예술과 후원의 공생 관계가 더 흥미롭게 다가온다.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 조언자이자 문화 애호가이던 가이우스 마이케나스(Gaius Maecenas, BC 70~8)에서 따온 메세나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꽃을 피웠다. 분명 예술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뚜렷했다. 권력과 취향을 뽐내고 선전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단지 시대가 바뀌면서 그 주체가 교회와 군주에서 귀족이나 부르주아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지금은 공공 영역에서, 그리고 이 글에서 다뤘듯 기업 차원에서 메세나와 아케팅, 혹은 두 요소가 합쳐진 움직임이 점점 더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말이다. 물론 오늘날의 후원은 주종 관계가 아니고, 역량과 브랜드 파워가 있는 예술가에게 외려 주도권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리고, 언뜻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기저에는 역학 관계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부디 가치 있는 공생으로 가는 사례가 많아지길 기대할 뿐이다. 글 **고성연**



1 서울 도산공원의 매장 층층이다. 예술 작품으로 수놓은 공간 구성이 인상적인 켈트몬스터의 플래그십 스토어 하우스 도산(Haus Dosan) 외관. 주 품목인 선글라스와 안경이 아니라 일찌감치 매진되기 일쑤인 디지털 아트를 선보이는 카페 뉴레이크와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 멤버십까지 들어서 있는 핫플로 뷰처 라인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하우스 도산 1층 라운지를 장식하고 있는 프래데리크 헤이만(Frederik Heyman)의 설치 작품. 기능과 효율을 포기하지 못하는 기존 라이프실 공간의 1층이 지닌 고정적 이미지를 타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3 아트의 디자인을 내세운 공간 마케팅의 미학을 우려-무에 일깨워 시도한 복합 판집매장이 되고 할 수 있는 10 코오롱스포츠의 진행 중인 (Italian Design : Achille Castiglioni and Joe Colombo). 아틸리아 산델 디자인의 눈부신 발판들 이면 2명의 거장 아킬레 카스티글리오(Achille Castiglioni)와 조 콜롬보(Joe Colombo)의 대표작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은 5월 30일까지이다. 이미지 제공 10 코오롱스포츠 서울 4 지난해 가을에 개장한 코오롱스포츠의 서울 한남동 플래그십 매장 내부. 지하 1층은 제품을 구매하고, 지상 1층은 전시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했다. 복합 문화 공간 피크닉(Piknic)과 손잡고 전시를 선보이는데, 한때는 낱보로 대변되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돌아본 기획전(Weather(Weather)가 진행 중)이다. 5월 6일까지, 무료 관람. 이미지 제공 코오롱스포츠 5 현대자동차의 여섯 번째 브랜드 체험관으로 디자인을 키워드로 삼은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이 지난 4월 초 문을 열었다. 부산 양자도의 복합 문화 공간 F1963에 들어서면 이 지상 4층 규모의 스튜디오는 개관전으로 오는 6월 27일까지 (리플렉션스 인 모션 REFLECTIONS IN MOTION)이라는 디자인 기획전을 연다. 이미지 제공 현대자동차



once upon a bag

에르메스 헤리티지 시리즈 최초 전시인 <마구의 뿌리>를 시작으로, 여행 오브제를 선보인 <에르메스, 꿈을 꾸는 여행자>, 레드 컬러를 통해 열정을 이야기한 <루즈 에르메스>에 이어 드디어 올해, 네 번째 전시 <에르메스, 가방 이야기>가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20세기 초에 등장한 오프 아 크로와(Haut à Courroies) 가방의 역사부터 시작해 클러치, 여성용 가방(켈리, 콘스탄스, 시몬느 에르메스 등), 남성용 가방(삭 아 테페슈, 시티 백 배스킷볼, 백팩 등), 여행용 가방(플름, 에르 백 등), 스포츠용 가방 등 다양한 제품과 각각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사전 예약은 필수. Hermes.com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전시 오픈에 앞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큐레이터 브루노 고다송(Bruno Gaudichon)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보냈다.

Style Chosun(이하 SC) 에르메스의 전시는 고무하거나 어렵지 않으며, 유틘트가 있어 매력적입니다. Bruno Gaudichon(이하 BG) 사실 <에르메스, 가방 이야기>와 같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럴 때마다 피에르-알렉시 뒤마(Pierre-Alexis Dumas, 에르메스의 아티스틱 디렉터)가 정의를 내린 '탕데부' 정신이 좋은 지침이 된다. 그가 테마를 선택하면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하우스 아카이브와 컨템퍼러리 크리에이션 컬렉션인 에밀 에르메스 컬렉션의 지원을 받아 전시물을 선정하고 전시 공간을 기획한다. 에르메스 팀은 단합이 잘되고 열정적이다. 명백한 참고 기준,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방문객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시노그래피 구현 사이의 균형이 매우 잘 잡혀 있다.

SC 20세기 초는 사용 목적이 곧 존재의 이유가 되는 기능적인 실용 백이 탄생한 시기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시기의 백도 많이 보이는데, 이때의 에르메스 백이 지닌 디엠은 무엇일까? BG 전시장 입구에서 볼 수 있는 에르메스 오프 아 크로와의 하이라이프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다. 오프 아 크로와는 어떤 면에서 에르메스 가방의 역사에서 절대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에르메스 이미지들을 함께 전시해 오프 아 크로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이루어지니 답은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웃음)

SC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애정이 갔던 백과 그 이유는? BG 각 오브제에는 모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가방의 제품 선정 과정이 워낙 흥미로웠기 때문에 특정 가방이 특히 더 기억에 남았는지 이야기하기는 정말 어려운 데, 꼭 하나만 언급하자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반짝였던 삭 아 말리스(Sac à Malices) 시리즈와 그에 관련된 역사를 꼽겠다. 이는 장-루이 뒤마(1978~2006, 에르메스의 전 CEO)가 오늘날의 에르메스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백이기 때문이다.

SC 이번 전시에서는 백을 다섯 가지 콘셉트로 나누었는데, 각각 간략하게 설명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BG 전시 동선은 에르메스의 헤리티지를 잘 보여주는 방법으로 구성했고, 방문객과



오브제의 교감에 초점을 두었다. 전시장 입구에서 방문객을 반겨주는 오프 아 크로와 가방(The Haut A Courroies Bag)은 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의미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공간에서는 유목민의 족보와도 같은 에르메스 가방 패밀리(The Families of Bags)에 대한 대사를 조명한다. 세 번째 공간에서는 에르메스에서 혁신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잠금장치(Clasps)와의 드라마틱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풍부한 참고 자료를 통해 에르메스만의 고유한 히스토리, 특히 하우스의 뿌리에 큰 영향을 미친 승마의 세계에 대한 히스토리를 만날 수 있다. 네 번째 공간은 유머와 완벽함의 조화로 장-루이 뒤마가 만든 삭 아 말리스를 선보이는, 유머가 있는 가방(Bags of Mischief)이다. 마지막으로 에르메스의 세대를 초월한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미적 창의성과 기능적인 혁신을 적용한 꿈과 상상력의 기록(Dream & Creation) 속을 거닐게 된다.

SC 다섯 콘셉트 중 개인적으로 'Clasps'와 'Dream & Creation'이 흥미롭다. 에르메스의 도전, 창의, 혁신, 유틘트, 그리고 자신감이 담겨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관점이 아닌 큐레이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BG 언급한 부분은 실제로 전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각각의 콘셉트를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에르메스의 헤리티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품질과 창의성의 근본을 표현하는 이 아름다운 전시에서 어떤 가방을 선보일지에 관련된 고민이었다.

SC 서울의 이미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에르메스 백 하나를 꼽는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BG 오프 아 크로와. 전통과 관례함을 생각하게 만드는 백인데, 이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상 깊게 경험한 두 가지 가치였기 때문이다. 또 이 백은 매우 이상적인 여행 가방이기 때문에 이 가방을 들고 조만간 다시 서울로 날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에디터 장미연**





1969년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착용했던 ST 105.012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문워치 디자인.



1 세드나 골드™ 소재에 레드 스트랩을 매치한 문워치 프로페셔널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그래프 42MM. 2 18K 세드나 골드™ 소재의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프로페셔널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그래프 42MM.

Extraordinary History, 2021년의 문워치

이 역사적인 모델의 모든 디테일과 감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무브먼트의 기능과 가치를 한 차원 높였다는 점이 이번 컬렉션의 특징이다. 이전의 문워치 무브먼트인 1861과 동일한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마스터 크로노그래프 인증을 획득한 무브먼트,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3861을 선보이기까지 장장 4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 새로운 무브먼트를 장착해 최대 1만5천 가우스의 자기장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시계가 최고 수준의 정확성과 성능, 항자성을 갖춘 마스터 크로노미터로 인증받았다. 무브먼트에 항자성 기능을 비교적 초기에 도입한 오메가는 이러한 완성도를 추구하기 위해 매뉴팩처 확장과 기술 업그레이드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5년간의 품질보증으로 더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특별한 모델의 출시를 위해 4세대 문워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다. 클래식한 비대칭 케이스와 스텝 다이얼, 이중 베젤 케이스백, 브리칭 처리한 브레이슬릿은 1열당 5개의 아치형 링크로 디자인했다. 오메가 로고를 더한 새로운 클래스프 역시 매력적이다. 시계 애호가라면 더욱 열광할 세심한 디테일을 추가했는데, 미닛 트랙은 1분을 5등분하는 기존 모델 대신 칼리버 3861의 진동수에 따라 3등분으로 선보인다. 이는 정확성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엄격한 기준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특히 18K 골드 모델로 럭셔리함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강렬하게 불타는 듯한 레드 컬러의 18K 세드나™ 골드나 밝은 화이트 컬러의 카노푸스™ 골드 소재는 소장 가치가 높다. 문의 02-3467-8632

the legacy continues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프로페셔널 마스터 크로노미터.



카노푸스™ 골드 소재의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프로페셔널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그래프 42MM

© sponsored by OMEGA



JOY GRAYSON

joygrayson.co.kr / Instagram: @joygrayson_official

2021 watches & wonders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해 처음 디지털 플랫폼 형식으로 진행한 워치스 & 원더스. 올해까지 이어진 팬데믹 상황 속에서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약간의 아쉬움을 느낀 것도 잠시,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단장한 웹사이트(watchesandwonders.com) 덕분에 실시간 스트리밍과 채팅을 통한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그뿐 아니라 행사 기간 중 브랜드의 개별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살롱의 소식을 전하는 모닝 쇼, 업계 인사가 참석하는 토론 및 강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행사를 풍성하게 했다. 무엇보다 빈값과 의미 있었던 것은 올해 워치스 & 원더스 행사에 불가리, 롤렉스, 튜더, 샤넬 워치, 루이 비통 등의 브랜드가 대거 유입되며, 총 38개에 이르는 워치메이커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비록 제품을 직접 만지고 착용해볼 수는 없었지만, 신선한 방식으로 세계 유수의 워치메이커가 선보인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던 2021 워치스 & 원더스. (스타일 조선일보)가 주목한 브랜드별 주요 모델을 소개한다.



탱크 마스트

클로쉬드 까르띠에 스키타넬

새로운 헤리티지, CARTIER

탱크 마스트 1977년 출시된 탱크 마스트가 2021년 새롭게 돌아왔다. 탱크 루이 까르띠에의 미학을 충실히 계승해 끝을 둥글린 샤프트, 디스플레이 비늘 조정 등 디테일한 요소의 변화가 일었다. 전 모델 스틸 케이스로 선보이며, 오토매틱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1847MC로 구동하는 엑스피지 모델을 제외한 스몰·라지 모델에는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한편 라인업 일부에는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획기적인 광전지 방식 다이얼을 장착하고, 평균 16년의 수명을 자랑하는 솔라비트™ 무브먼트도 함께 탑재해 배터리 교체와 수고를 덜어주는 한편 친환경적인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모습. 레드·블루·그린을 입힌 3종의 컬러 모델도 선보인다. 인덱스, 레일 트랙 등을 생략한 미니멀한 다이얼, 동일한 색상 의 알레기어터 리더 스트랩이 어우러져 완벽한 모노크롬 콘셉트를 보여준다.

클로쉬드 까르띠에 까르띠에는 매종의 소수 고객과 워치 컬렉터를 위해 전설적 모델로 구성된 까르띠에 프라베 컬렉션을 전개해왔다. 올해의 주인공은 1917년 처음 출시된 클로쉬드 까르띠에. 테이블에 올려둔 종(cloche) 모양을 닮은 케이스를 따라 90도 회전시킨 다이얼 디스플레이가 유니크하다. 2021년 신제품은 오리지널 모델의 아이덴티티를 적극 반영한 세 가지 버전, 스키타넬 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기본 모델은 매뉴얼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1917MC를 탑재한 지름 37.15x28.75mm의 로즈 골드·옐로 골드·플래티넘 케이스로 출시한다. 스키타넬 버전은 매뉴얼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9626MC를 탑재한 핑크 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 세팅 플래티넘 케이스(크기 동일)로 만날 수 있다. **파사드 까르띠에 크로노그래프** 지난해 다시 론칭한 파사드 까르띠에는 올해 신제품 라인업에 여성을 위한 지름 30mm 모델과 지름 41mm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새롭게 추가했다. 파사드 까르띠에 크로노그래프는 블루 카보숑 컷 스톤을 세팅한 커다란 푸시 버튼과 회전 베젤을 다룬 강인한 외관이 돋보이는 제품. 스틸 또는 골드 소재로 선보이며, 교체 가능한 퀵 스위치 시스템을 적용한 네이비 블루 및 그레이 알레기어터 리더 스트랩, 스마트 링크 시스템을 겸비한 스틸 브레이슬릿과 함께 제공한다. 47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오토매틱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1904-CH MC로 구동한다.



파사드 까르띠에 크로노그래프

끝없는 혁신, JAEGER-LECOULTRE

리베르소 허브리스 메카니컬 칼리버 185 올해 예저 르콜트르는 매종의 아이콘 리베르소 탄생 90주년을 맞아 6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 개발한 그랑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공개했다. 세계 최초로 하나의 시계에 4개의 다이얼을 장착했으며, 무려 11개의 컴플리케이션 기술을 적용했다. 이 모든 기능을 응축한 인하우스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185를 지름 51x31mm, 두께 15mm에 불과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담은 것 또한 놀라운 부분이다. 전면 다이얼인 페이스 1은 시·분, 투르비용, 파페추얼 캘린더, 날짜·일·월, 윤년, 낮과 밤을 표시한다. 케이스를 반전시키면 드러나는 페이스 2에서는 정밀 이원 방식의 세컨드 타임존 디스플레이와 미닛 리피터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편에 위치한 페이스 3은 사실적인 모양의 복판구 문패이자, 달의 교정 주기와 근점 주기, 월을 표시해 천문 현상에 관련된 갖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백의 페이스 4는 남반구의 문패이츠를 담고 있는데, 인하우스 메테리얼® 이틀라이에 서 적용한 블루 그라데이션 래커 다이얼, 인그레이빙으로 빛깔을 더한 스카이 차트, 핑크 골드 달이 어우러진 사자형 디자인이 아름답다. 전 세계 10피스 한정 출시한다. **리베르소 윈 프레스스 플라워** 생동감 넘치는 꽃의 아름다움을 시계에 옮겨 담았다. 릴리, 아튬을 모티브로 한 네 가지 모델은 각각 화이트 골드 또는 핑크 골드 케이스를 장착, 조곤씩 다른 패턴과 컬러를 안았다. 모두 지름 20x40mm의 다이아몬드 세팅 케이스에 화이트 마더오브펄 다이얼을 더했고, 에나멜 패턴링, 인그레이빙, 젤라틴 같은 정인의 세심한 수공예 기술이 빛아래 아름다움을 민낯할 수 있다. 인하우스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46을 장착했으며, 루빅스 엑스클루시브로 각각 10피스 한정 생산한다.



리베르소 허브리스 메카니컬 칼리버 185



리베르소 윈 프레스스 플라워 파플 아튬



히스토리 아메리칸 1921

히스토리 아메리칸 1921

우아함의 정의, VACHERON CONSTANTIN

히스토리 아메리칸 1921 쿼스헌팅 케이스, 대각선 방향 디스플레이, 1사와 2시 사이에 위치한 크로이온이 특징인 아이콘 타임피스 히스토리 아메리칸 1921. 탄생 1백 주년을 기념해 기쁨 넘치는 디자인을 재현한 지름 40mm, 36.5mm의 화이트 골드 버전, 지름 40mm의 플래티넘 버전을 새롭게 출시했다. 특히 플래티넘 모델은 엑스클루시브 컬렉션이라는 명칭 아래 부티크에서만 만날 수 있는 1백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시·분,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 65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하는 인하우스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4400AS를 탑재했다. **에제리 셸프 와인딩 다이아몬드 파베** 오토 와인딩과 오토 쿼투르의 조화가 빛아래 하이 주얼리 타임피스, 기하학적인 비대칭 디자인과 시그니처인 오프셋 날짜창 디스플레이가 돋보인다. 지름 35mm의 화이트 골드 또는 핑크 골드 케이스에 3백3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다이얼에 5백74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장착했다. 별도의 도구 없이 손쉽게 교체 가능한 새틴 또는 알레기어터 리더 스트랩과 함께 제공하며 40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셸프 와인딩 메카니컬 칼리버 1088로 구동한다.



에제리 셸프 와인딩 다이아몬드 파베

궁극의 파일럿 워치, IWC

빅 파일럿 워치 스크 업스버 XPL IWC의 새로운 엔지니어링 부서 TWC 인스피라멘탈이 8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한 혁신적인 충격 흡수 시스템 'SPRING-g PROTECT'를 적용한 최초의 시계. 중상부 에 위치한 '엔탈라베드 스프링'이 IWC 자체 제작 32115 칼리버를 고정해 이에 기여하는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미래 지향적이며 강인한 디자인의 케이스는 IWC에서 티타늄을 기반으로 개발한 특수 소재 '세라티늄'을 사용한 것. 티타늄만큼 가볍고 견고한 동시에 강도가 뛰어나고 스크래치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모델은 까다로운 생산 공정으로 연간 10피스만 한정 출시한다. **빅 파일럿 워치 파페추얼 캘린더** 더블 문패이자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파페추얼 캘린더를 즐길 수 있는 IWC의 대표 모델 빅 파일럿 워치 파페추얼 캘린더. 올해는 스틸 케이스와 블루 다이얼 버전을 새롭게 추가했다. 큼직한 다이얼 위 날짜·요일·월 디스플레이, 네 자리 연도 표시창과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균형을 이룬다. 2개의 베젤을 갖춰 7일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IWC 자체 제작 52615 칼리버는 윤년을 자동으로 계산하며, 2100년까지 별도의 조정 없이도 민근 정교하게 작동한다. 케이스 지름 46.2mm.



빅 파일럿 워치 스크 업스버 XPL

빅 파일럿 워치 파페추얼 캘린더



오토 피니시오 파페추얼 캘린더

세르펜티 미스테리오시 클레오파트라

노련한 강자, BVLGARI

오토 피니시오 파페추얼 캘린더 오토 피니시오 컬렉션으로 올드-신 분야에서 지난 7년간 꾸준한 세계기록을 세운 불가리가 올해 다시 한번 신기록을 세웠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오토 피니시오 파페추얼 캘린더가 그 주인공. 두께 5.8mm에 불과한 극도로 얇은 케이스 내부에, 4백3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상호작용하는 오토매틱 칼리버 BVL 305를 장착했다. 각각 12시, 3시와 5시, 7시와 9시 사이에서 날짜, 월, 요일을 표시하며 모든 기능은 3개의 코렉터로 개별 조정 가능하다. 지름 40mm의 샌드 블라스티 티타늄 케이스와 플래티넘 케이스, 두 가지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세르펜티 미스테리오시 클레오파트라** 로만 주얼리 불가리의 대담한 미적 감각과 탁월한 세공 노하우가 절정을 이룬 하이 주얼리 카드 워치. 유가적으로 연결된 육각형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한 뒤 에미사트, 아이라진, 크롬 투르말린, 탄자나이트, 페르도트 등 무지갯빛 컬러 스톤으로 장식했다. 각 면을 육각형으로 처리한 5,067개의 상단의 루벨라이트 투에는 다이아몬드 폴 파베 다이얼을 숨겨두어 우아하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시인을 읽을 수 있다. 불가리가 맞춤 제작 한 불가리 로고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니크 피스다.



예술적 워치메이킹, ROGER DUBUIS

엑스칼리버 싱글 플라잉 투르비용 아이콘적인 엑스칼리버 컬렉션을 통해 과감한 변화를 꾀한 로저드브의 신제품 '엑스칼리버 싱글 플라잉 투르비용'. 우선 디자인적으로는 무브먼트의 플레이트를 장식하던 시그니처 별 모티브를 배럴 위로 들어 올려 입체적인 다이얼 구조를 완성하고, 라그로 이어지는 케이스 측면과 크라운 가드 등을 보다 날렵하고 간결한 실루엣으로 단정했다. 한편 새롭게 개발한 인하우스 수동 칼리버 RD5120SQ는 투르비용 케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품을 경량성이 뛰어난 티타늄 소재로 교체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덕분에 파워 리저브 기능은 72시간으로 향상했다. 지름 42mm의 다크 그레이 티타늄, 코발트 크롬, 이온 골드, 총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하며 퀵 릴리즈 시스템을 적용한 스트랩과 함께 제공한다. 각 88피스 한정 출시. **엑스칼리버 글로우 미 업** 싱글 플라잉 투르비용 칼리버 RD5120SQ를 탑재한 엑스칼리버 워치의 배열에 60개의 바테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그 흠의 테두리 네 면에 슈퍼루미노바를 채워 넣었다. 이는 로저드브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기술로, 어두운 곳에서도 다이얼이 더 밝아보여 빛을 발한다. 그뿐 아니라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여러 부품 모사리와 이워 마커, 상징적인 별 장식의 브리지에도 슈퍼루미노바를 채워 넣 더 더욱 화려하다. 케이스 지름 42mm, 전 세계 8피스 한정 출시로 선보인다.



엑스칼리버 싱글 플라잉 투르비용

엑스칼리버 글로우 미 업



리앙라이트 갈라 인그레이빙 마더 오브 펄

홀로 스키타넬 골드

정체성의 진화, PIAGET

리앙라이트 갈라 인그레이빙 마더 오브 펄 다이얼을 감싸는 유려한 곡선형의 비대칭 러그가 상징적인 피아제 리앙라이트 갈라는 1970년대부터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아온 모델이다. 올해 등장한 디체 로우 리앙라이트 갈라 신제품은 펠리스 데코 기법을 활용한 장식적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것. 특히 까치기 쉬운 마더오브펄 소재에 펠리스 데코 공예를 더해 고귀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리앙라이트 갈라 인그레이빙 마더 오브 펄은 6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화이트 알레기어터 리더 스트랩을 매치해 더욱 근사하다. 케이스 지름 28mm, 3백피스 한정 출시로 선보인다. **홀로 스키타넬 골드** 매종의 아이콘테티를 대변하는 홀로 워치에 성세한 스키타넬 기법을 적용했다. 화이트 골드 또는 로즈 골드, 두 가지 소재의 라운드 케이스는 지름 42mm, 두께 6.5mm로 쿼스헌팅 다이얼을 품고 있다.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스키타넬 다이얼과 알레기어터 스트랩은 동일한 블루 컬러로 케이스와 무려한 컬러 매치를 이룬다. 케이스 전면과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인하우스 오토매틱 무브먼트 GOA46000의 정교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홀로 스키타넬 골드



정신적 유산, Montblanc

몽블랑 1858 자오스피어 리미티드 에디션 1858 전설적인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가 2004년 고비 사막에서 성공한 2,000km 단독 횡단을 기념해 출시한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 새틴 처리한 지름 42mm 브론즈 케이스, 브라운 세라믹 양방향 회전 베젤, 브라운 컬러 그레데이션 라커 다이얼, 빈티지 브라운 스프리드 컵 스트랩의 조화가 멋스럽다. 케이스 백에는 비양자(자)라 불리는 고비 사막의 불타는 절벽과 윈드 로즈 나침반을 특별한 인그레이빙 기법을 통해 극사실적으로 그려 넣었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12시와 6시 방향에 위치한 2개의 동형 회전 반구 주변에는 낮/밤 인디케이터를 포함한 24개 도시의 타임존 스케일을 더했고, 9시 방향에 세컨드 타임존, 3시 방향에 날짜창을 배치했다. 1천백58피스 한정 출시, **몽블랑 1858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 오라진스 리미티드 에디션 100** 1930년대 출시한 역사적 타임피스 일라티리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를 재해석한 모델. 빈티지한 브러시드 브론즈 소재 케이스는 과거 여느 타임워치의 시계를 연상시키며, 커버를 여닫는 오픈탑 케이스 백은 전통적인 하이엔드 포켓 워치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케이스 백 양쪽에는 미니테러의 유산을 상징하는 특별한 이미지와 문구를 인그레이빙했는데, 이를 열면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통해 매뉴팩처 모노푸셔 크로노그래프 칼라버 MB M16.29의 정교한 기계적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다. 3시 방향에 미닛 카운터, 9시 방향에 스물 세컨즈가 자리하며 카운터 에-인 크라운 중앙의 모노푸셔를 통해 조작 가능하다. 전세계 1백 피스 한정 출시한다.



몽블랑 1858 자오스피어 리미티드 에디션 1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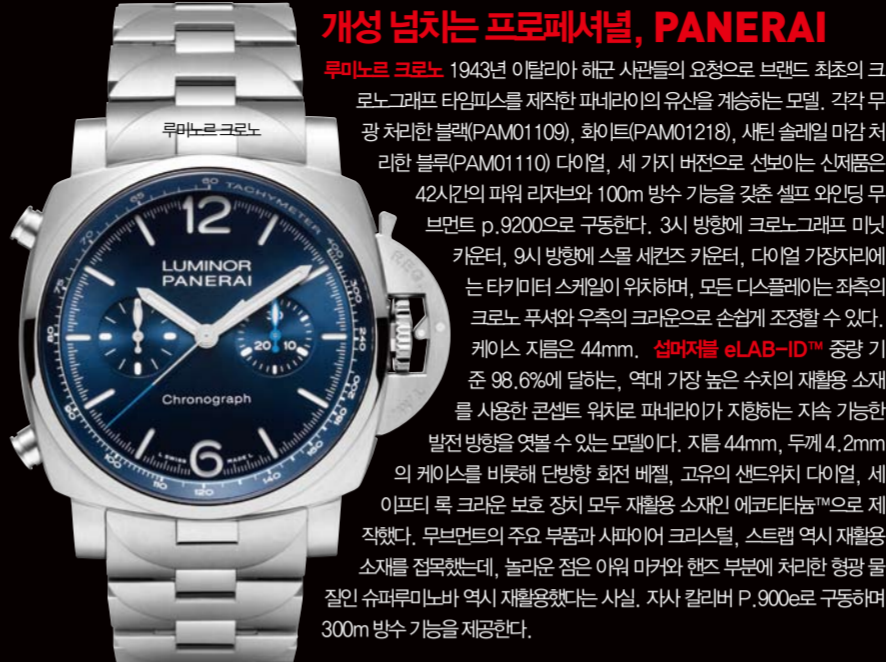


독창적 미학, CHANEL WATCH

J12 일렉트로 드림 비젤을 떠나 올해부터 워치스 & 윈다스에 합류한 사넬 워치는 1980년대 일렉트로 뮤직에서 영감을 얻은 일렉트로 시리즈를 선보였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음악처럼 화려한 컬러를 입은 컬렉션은 사넬의 클래식 코드를 완벽하게 전복한 모습. 특히 네 가지 라인업으로 전개한 J12 일렉트로 에디션은 동화적인 라인보 컬러 젤스톤 세팅이 돋보인다. 대표 모델인 J12 일렉트로 드림은 베젤과 아워 링을 12가지 컬러의 바게트 컷 사파이어로 장식했다. 지름 33mm의 매트 블랙, 화이트 세라믹 케이스, 두 가지 버전으로 전개하며 각 55피스 한정 생산한다. **보이프렌드 스칼레온 X-Ray** 2015년 론칭한 후 간결한 라인업과 균형 잡힌 실루엣으로 높은 인기를 얻은 보이프렌드 컬렉션. 처음으로 엑스레이 콘셉트를 적용한 '보이프렌드 스칼레온' 워치는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와 베젤을 장착해 어느 각도에서나 인하우스 매뉴팩처 칼라버 3의 견고한 재배를 감상할 수 있다. 5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크라운, 알라게이터 패턴의 사파이어 블랙 컵 스킨 스트랩이 모던함을 배가한다. 케이스 지름은 37x8.6mm로 1백 피스 한정 출시한다.



보이프렌드 스칼레온 X-Ray



개성 넘치는 프로페셔널, PANERAI

루미노르 크로노 1943년 이탈리아 해군 사람들의 요청으로 브랜드 최초의 크로노그래프 타임피스를 제작한 파넬라이의 유산을 계승하는 모델. 각각 무광 처리한 블랙(PAM01109), 화이트(PAM01218), 새틴 슐레이 마감 처리한 블루(PAM01110) 다이얼,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은 42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100m 방수 기능을 갖춘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P.9200으로 구동한다. 3시 방향에 크로노그래프 미닛 카운터, 9시 방향에 스물 세컨즈 카운터, 다이얼 가장자리에 타카미터 스케일이 위치하며, 모든 디스플레이는 최초의 크로노 푸셔와 우측의 크라운으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다. 케이스 지름은 44mm. **셀마저블 eLAB-ID™** 중량 기준 98.6%에 달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의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콘셉트 워치로 파넬라이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모델이다. 지름 44mm, 두께 4.2mm의 케이스를 비롯해 단방향 회전 베젤, 고무의 샌드위치 다이얼, 세이프티 록 크라운 보호 장치 모두 재활용 소재인 에코티늄™으로 제작했다. 무브먼트의 주요 부품과 사파이어 크리스탈, 스트랩 역시 재활용 소재를 적용했는데, 놀라운 점은 아워 디카와 핸드 부분에 차리한 영랑 물결인 슈퍼루미노바 역시 재활용했다는 사실. 자사 칼라버 P.900e로 구동하며 300m 방수 기능을 제공한다.



셀마저블 eLAB-ID™



차별화된 기술력, A. LANGE & SÖHNE

링에 1 페퍼추얼 캘린더 지름 41.9mm, 두께 12.1mm의 케이스에 새롭게 개발한 자동 와인딩 무브먼트 L021.3을 탑재했다. 시간을 표시하는 작은 다이얼이 케이스 중심에서 벗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다이얼 외곽에는 링 형태의 월 디스플레이, 7시 방향에는 문페터, 8시와 10시 사이에는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의 요일 디스플레이, 11시 방향에는 날짜창이 위치한다. 특히 인페이트 디스플레이는 낮과 밤 인디케이터와 결합된 것이 특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밝은 블루 컬러 또는 밤이 밝는 데크 블루 컬러 하늘로 변한다. 그레이트 슬리브 다이얼을 더한 핑크 골드 버전 또는 슬리드 핑크 골드 다이얼을 장착한 화이트 골드 버전(1백50피스 한정 출시)으로 만날 수 있다. **트리플 스톱 리트** 2018년 처음 출시한 '트리플 스톱'은 최대 12시간 동안 중간 시간 및 특정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계식 스톱워치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워치다. 화이트 골드 소재인 전작과 달리 핑크 골드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 로동 도금 서브 다이얼을 매치한 올해의 신제품은 매뉴팩처 칼라버 L.132.1로 구동한다. 2·4·10시 방향에 푸시 버튼이 위치해 각각의 크로노그래프 핸드에 중첩된 리트리퍼드 핸즈를 함께, 혹은 따로 조절할 수 있고 플라이백 기능까지 갖췄다. 케이스 지름은 43.2mm, 1백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무브먼트 L021.3



모던함의 정수, HERMÈS

에르메스 H08 6년 만에 선보이는 완벽히 새로운 남성 컬렉션으로 숫자 0과 8은 각각 무와 무한함을 상징한다. 쿠션형 케이스에 원형 다이얼을 담은 유니크한 디자인의 세 가지 모델로 전개한다. 그중 하나는 그레판이라는 견고하고 가벼운 신소재 케이스가 특징으로, 블랙 세라믹 베젤과 블랙 골드 마감 다이얼을 장착했다. 나머지 두 가지 모델은 각각 매트 블랙 DLC 코팅 티타늄 케이스, 새틴 브러시드 티타늄 케이스로 미묘한 차이를 두었고, 모두 블랙 나일론 코팅 다이얼을 더했다. 인하우스 메카닉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H1837로 구동하고 지름은 39x39mm이며, 100m 방수 가능하다. **포부르 물가** 2014년 출시한 미니어저 워치 '포부르'의 초소형 라운드 케이스, 자개 다이얼 등 기본 구조를 차용한 쿼츠 무브먼트 워치. 브레이슬릿은 도트와 사선 패턴이 어긋난 메시 스타일로 파인 주얼리 무드가 강하다. 화이트 골드 또는 로즈 골드 소재로 선보이며 다이아몬드 베젤 세팅, 전체 파베 세팅 등 총 다섯 가지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전개한다. 케이스 지름은 15.5mm.



포부르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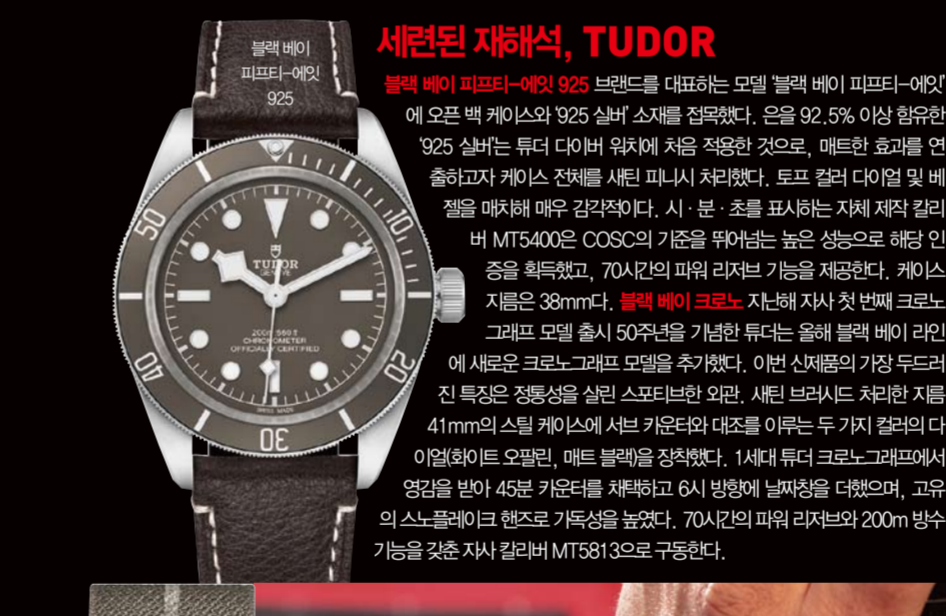


창의적 상상력, LOUIS VUITTON

뎡부르 스트리트 다이버 20여 년 전 처음 등장한 하우스의 아이코닉 워치 '뎡부르'가 다이버 워치로 영역을 넓혔다. 올해 처음 참가한 워치스 & 윈다스를 통해 아심 차게 선보인 뎡부르 스트리트 다이버는 스크루 다운 크라운, 100m 방수 기능, 슈퍼루미노바 처리한 인덱스와 핸드, 다이빙 스케일을 그려 넣은 단방향 회전 베젤 등 다이빙 워치가 갖춰야 할 전통적 요소를 지닌 동시에 하우스가 지향하는 동시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모습. 케이스 지름 44mm의 오토매틱 무브먼트 모델 3종(스카이라인 블루, 네온 블랙, 블랙 블랙), 지름 39.5mm의 쿼츠 무브먼트 모델 1종(파시픽 화이트)으로 전개한다. **뎡부르 카르페 디엠** 수수의 고객을 위한 스페셜 오디 워치를 제작하는 루이 비통이 선보이는 오토매틱 워치. 성장 중첩에서 매시간 중을 차도록 만든 기계장치를 일컫는 '오토매틱'은 필요할 때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의 기능이기도 하다. 케이스 오른쪽의 파충류 모양 푸셔를 누르면 중앙에 위치한 뱀의 머리가 들리면서 해골 아바 부분에 시선이 나타난다.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모래시계 이레 빙울뱀 꼬리는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으로 분을 알리고, 해골 턱선이 움직이며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는 문구가 16초간 등장했다 사라진다. 이 모든 메카니즘은 루이 비통 시계 공방에서 개발한 LV 525 칼라버로 작동한다.



뎡부르 카르페 디엠



세련된 재해석, TUDOR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925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에 오픈 백 케이스와 '925 실버' 소재를 접목했다. 은을 92.5% 이상 함유한 '925 실버'는 튠더 다이버 워치에 처음 적용한 것으로, 매끈한 표면을 연출하고자 케이스 전체를 새틴 파니시 처리했다. 토포 컬러 다이얼 및 베젤을 매치해 매우 감각적이다. 시·분·초를 표시하는 자체 제작 칼라버 MT5400은 COSC의 기준을 뛰어넘는 높은 성능으로 해당 인증을 획득했고, 7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한다. 케이스 지름은 38mm다. **블랙 베이 크로노** 지난해 자사 첫 번째 크로노그래프 모델 출시 50주년을 기념한 튠더는 올해 블랙 베이 라인에 새로운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추가했다. 이번 신제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통성을 살린 스포티브한 외관. 새틴 브러시드 처리한 지름 41mm의 스틸 케이스에 서브 카운터와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컬러의 다이얼(화이트 오팔린, 매트 블랙)을 장착했다. 1세대 튠더 크로노그래프에서 영감을 받아 45분 카운터를 채택하고 6시 방향에 날짜창을 더했으며, 고무의 스노-플레이드 핸즈로 가독성을 높였다. 7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200m 방수 기능을 갖춘 자사 칼라버 MT5813으로 구동한다.



블랙 베이 크로노 피프티-에잇 925



선구자 정신, ROLEX

오이스터 페퍼추얼 인스플로러 엘로우 플레조 18K 옐로우 골드와 오이스터 스틸을 조합한 옐로우 플레조 버전의 차세대 인스플로러, 블랙 라커 다이얼에 더한 숫자 인덱스, 핸드 모두 푸른빛 야광 물질 '크로마리이트'로 처리해 가독성을 극대화했다.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은 풀림을 방지하는 오이스터 폴딩 클라스프를 장착했고, 사용자가 직접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자링크 컴포트 인스텐션 링크까지 갖춰 기능적으로 매우 편리하다. 자체 개발 무브먼트 칼라버 3230으로 구동하며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케이스 지름 36mm. **오이스터 페퍼추얼 데이타저스트 36** 클래스를 상징하는 데이타저스트 모델이 보다 생기 넘치는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열대우림에서 영감을 얻은 팜 모터보트 브랜드의 시그니처 스타일 중 하나인 플루티드 모티브를 장식한 다이얼을 선보인 것. 옐리브 그린 골드 실버 컬러 다이얼, 옐로우 플레조·애버로즈 플레조·오이스터 스틸 케이스, 오이스터·주빌리 브레이슬릿의 매력적 조합이 돋보이는 총 네 가지 버전의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자체 개발한 페퍼추얼 칼라버 3235를 탑재했다. 에디터 이베라(퀵엔 에디터)



오이스터 페퍼추얼 데이타저스트 36



a dream girl

5월의 싱그러움과 함께하는 꿈결 같은 리조트 룩 제안. photographed by jungji eun

핑크 컬러 원 숄더 이브닝 드레스 8백80만원, 골드 컬러 펌프스 1백15만원 모두 구찌.



메들락 디테일 드레이프 비데칭 드레스 5백34만원, 혼 힐 리더 샌들 1백56만원, 자물쇠 장식 브레이슬릿 1백75천원 모두 자방시.



레드 컬러 보디슈트,
레디스커트, 브라운 컬러 물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그린 컬러 리벳 미시 소재
재킷 3백24만5천원, 리벳 미시
소재 드레스 2백33만5천원,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링 1백25만5천원
모두 보타가 베네다.

그린 컬러 드레스 1백57만5천원
토즈, 라이트 블루 컬러 버클
슬라이드 1백41만원 로저 비비에,
살바도르 아야를 23만8천원
포인트 리프트



옐로 컬러 펀칭 리더 재킷,
레드 컬러 보디수트,
퍼칭 리더 스카트 모두 가격 미정
살바토레 페라가모, 옐로 컬러
레디셴을 76만원 토즈,



스트라이프 드레스,
블랙 스트랩 샌들
모두 가격 미정 사슴.



옐로 칼러 미디 드레스 3백75만원
일렉산더 맥퀸 버클 슬리퍼
1백96만원 로저 비비에,
골드 후프 이어링 21만원,
골드 & 실버 트윈스트 체인 네크리스
39만원 모두 포트레이트 리포트.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이영
모델 박화정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 에르메스 02-542-6622
- 보타가 베네타 02-3438-7682
- 샤넬 080-200-2700
- 구찌 02-3452-1921
- 일렉산더 맥퀸 02-6905-3472
- 실버토게 페라가모 02-3430-7854
- 토즈 02-3438-6008
- 로저 비비에 02-6905-3370
- 지형시 02-548-2790
- 포트레이트 리포트 070-4062-4038

(위부터) 라벤더 컬러 펌 스킨 비비 플랫폼 89만원 **삼보토레 파라기오**, 02-3430-7854, 옐로 컬러를 입힌 알루미늄 산셋 커피스 1백만원, 알루미늄 산셋 브레이슬릿 55만원 모두 **에르메스**, 02-542-6622, 베이비 핑크 컬러 송이자갈족 보디를 골드빛 미유키 진주로 장식한 스몰 탭메트 백 가격 미정 **델보**, 02-6905-3709, 메탈 소재 브이로그 시그니처 아이밍 39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니**, 02-2015-4653, 시원스러운 에메랄드 컬러가 돋보이는 체인 클러치 가격 미정 **샤넬**, 080-200-2700, chanel.com, 부드러운 라군 나피로 제작한 샌들 웨지 1백29만원 **보타가 베네타**, 02-3438-7601.



gift
IDEAS

가정의 달 5월, 주고받는 모든 이의 마음을 빛내줄 스페셜 기프트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샬레베이션



비마인트풀 V
브레이슬릿 39만원
루이 비통,
02-3432-1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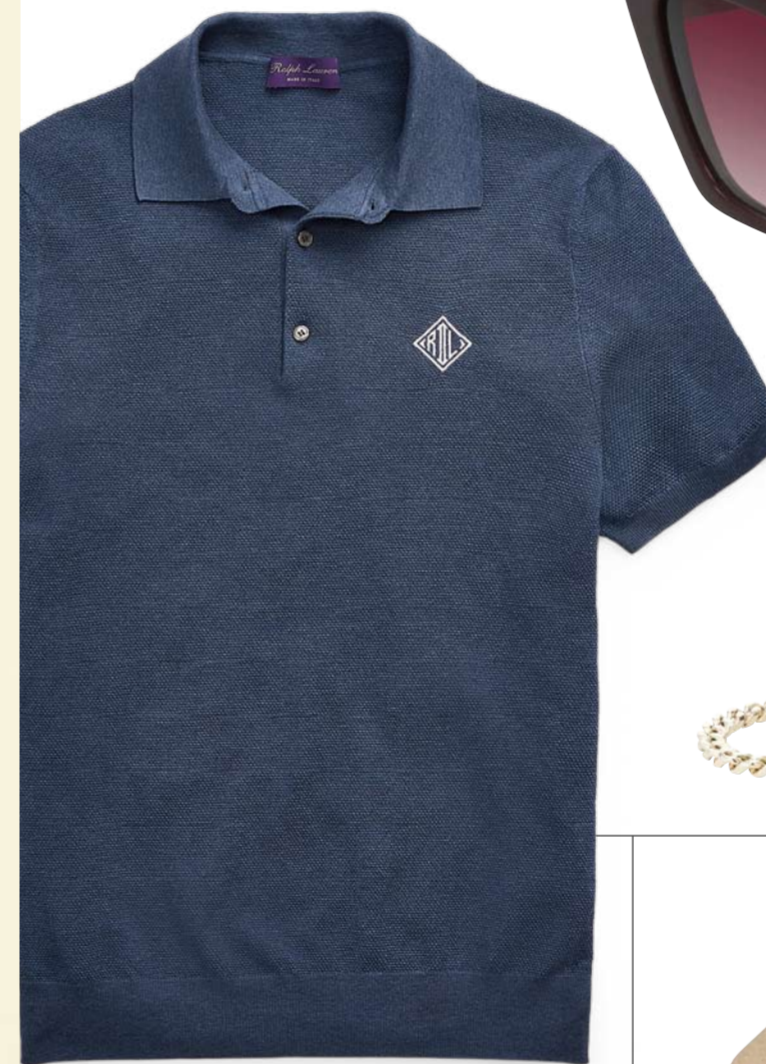


마고 클래식
토티백 54만원
조이그리슨,
080-202-2002



트윈 롱스카트
1백만원대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Fashion



모노그램 실크 블렌드 울로 컬러 스웨터 1백19만원
말프 로렌 파울 라벨, 02-3438-6235



셀비지 캣아이 선글라스
37만5천원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세르펜티 카보숄 백
3백만원대
볼가리,
02-2056-0170



투톤 GV3 가죽 지갑 7만원
지형시, 02-546-2790



수트케이스
스프라이프 햇 90만원대
로코피아나,
02-546-0615



비쥬 비게트 클러치 백 1백만원대
핀디, 02-6905-3717



토즈 플렉시 힐 샌들
70만원대
토즈,
02-3438-6008



디올 오블리크 보트 크로스 보디 백 가격 미정
디올, 02-3480-0104



스카이블루 피씨
포터블 램프 12만원
이노베이션, 02-3463-7752



라이카 C-라스
라이카 골드
공백은 카메라
1백만 원 라이카,
070-7510-7822



스타일 퍼펙트 펜 | 백만 원 이노베이션, 02-342-8822



어드밴스드 제니피크 75ml
19만원대 랑콤,
080-022-3332

Beauty+Living



미즈가이아 오일 에센스 14ml 67천원
비비엔, 02-3479-1888

매종 마르자겔라 물리워
미젯 100ml 17만5천원
매종 마르자겔라,
080-363-5454



REPLICA
REPRODUCTION OF FAMILIAR
SCENTS AND MOMENTS OF VARYING
LOCATIONS AND PERIODS
Originally:
.....Flower Market.....
Provenance and Period:
.....Paris... 2011.....
Fragrance Description:
Crisp, petal, freshness
Style Description:
...Female fragrance...
Maison Margiela
PARIS

인센스 9 클래식 캔들
245g 10만2천원대 르라보,
02-697-3204



ENCENS 9
245g 8,8 OZ.
scented candle / bougie parfumée
Labelled: in New York City
On: date of preparation
For: your name here
1000 Avenue L - 100 - LE LABO - 100 Elizabeth Street, New York, NY 10012, USA



셀룰라 퍼펙트 리프트
아이 크림 15ml 55만2천원
스위스퍼펙션,
051-745-1202



레드 스타이트 분청 화병
24X13X15cm, 50만원
허삼욱 by 슬루니리빙,
02-736-3618



리운 벨라 골드
램프 24만5천원 라운,
1600-1547



자음생에센스(30ml), 윤조에센스(60ml),
자음생수(30ml), 자음생유액(30ml),
자음생크림(5ml) 구성의
자음생 인티메이징 스페셜 라주얼
18만원대 슬화수, 080-023-5454

포토그래피: 최민영, 김사영(가림)

(유류터) 제노올로 물든 해변가를 네 가지 컬러로 표현한
시그니처 컬러 아이즈 #104 6,2g 9만원 스퀴, 02-6905-3369.
채리 오일을 함유한 디올 아드트립 글로우 #025 서울 스텝렛 3,2g
4만5천원대 디올, 080-342-9500, 부드러운 핑크, 바건디와 피치,
로즈 베이직 컬러를 담은 레베쥬 헬시 글로우 내추럴 아이셰도우
팔레트 텐더 4,5g 9만원 샤넬, 080-332-2700, chanel.com.
피부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부여하는 에티에 드 보아레 푸드르
모노 #302 크레파스풀 8g 12만원 보아레, 1644-4430,
립에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더하는 크레이용 광푸르 데 레브르 립
킨투어 펜슬 #루비 1,1g 4만 천원 구찌 뷰티, 080-3452-1921.
팬더 가이드에 트윙킷 트레이 70만원대 카르띠에,
1566-7277, 카펠라와 오일과 비타민 E 아세이트 등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한 르 휘토 블러쉬 #골드 로즈
6,5g 8만2천원 샤슬리, 080-549-0216.



(위부터) 약 4.74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42개로 장식한 유려한 베젤이 특징인 라임라이트 갈라 워치 32MM 7천3백만원대 **피아제**, 02-3479-1802. 핑크 골드 케이스와 토퍼 칼리 가죽 스트랩의 조화가 우아한 리베르스 클래식 미디엄 듀에토 3천4백80만원 **에거 로블트르**, 02-6905-3998. 37암 생활 방수 기능을 갖춘 칼리버 35111로 구동하는 다빈치 오토매틱 36.4천9백20만원 **IWC**, 1670-7363. 별들이 수놓인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다이얼이 특징인 컨스텔레이션 코-엑스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29MM 3천7백50만원 **오메가**, 031-5170-1111. 화이트 자개 다이얼 위 아랑 물결을 일련 중양 초침과 3시 방향 날짜창이 특징인 브레게 마린 덤프 9518 4천3백만원대 **브레게**, 02-3149-9559. 1시 방향에 위치한 문패이즈 속 자개로 완성한 구름 사이 달 모티프가 영롱하게 빛나는 에제리 문패이즈 골드 4천9백60만원 **바세몬 콘스탄틴**, 1660-4606.



Watch



블랙 레커 다이얼 프라이어 워치 가격 미정 **샤넬 워치**, 080-200-2700, chanel.com



1858 지오스피어 리미티드 에디션 1858 8백41만원 **몽블랑**, 1670-4810



라디드 디올 타이거스 아이세틴 가격 미정 **디올 파양피스**, 02-3480-0104



발리네 컴플리트 칼린더 3천만원대 **블랑팡**, 02-3213-2261



쿠마노르 두에 38MM 1천9백만원대 **파나라이**, 02-6905-3394



에르메스 H08 6백만원대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플라잉 트루비움 2억3천2백만원 **로저드뷔**, 02-3479-1403



론진 스피릿 3백만원 **론진**, 02-3479-1940



옥토프 비올리 S 스틸 실버 다이얼 1천5백만원대 **블가리**, 02-2056-0170



인트리 메틱 크로노그래프 H 2백77만원 **해밀턴**, 032-320-7559

Jewellery



18K 레드 골드 오메가 플라워 링 1백61만원 **오메가**, 02-3467-8632



젬 디올 컵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02-3480-0104



리앙 하모니 메달리온 펜던트 스몰 2백만원대 **쇼세**, 02-3479-1597

프라블 브레이슬릿 미니 모델 5백만원대 **반젤리프 이젤**, 1668-1906



코코 크러쉬 유엔미링 가격 미정 **샤넬 화인주얼리**, 080-200-2700, chanel.com



엠플루트두 솔리드 이어링 1백2만원 **골든듀**, 1588-6576



플라이 바이나이트 링 8백30만원 **스타브 헬스터**, 02-2231-1592



18K 화이트 골드 포스텐 링 4백90만원 **프레드**, 02-514-3721

벨런스 유니이트 펜던트 네크리스 1천7백만원대 **타사키**, 02-3461-5558



티파니 T1 바켓 컷와이드 힌지트 밴글 가격 미정 **티파니**, 02-6250-8600



말레니 아싱글 이어링 컵프 7천9만원 **스외로브스키**, 02-6402-1725

(위부터) 오나스로 코를, 에펠리로 눈을 표현하고, 머리 부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라 펜더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카르띠에**, 1566-7277. 밀라카이트 카보숑과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회전 밴드가 상징적인 포제션 오픈 밴글 브레이슬릿 1천2백70만원대 **카르띠에**, 02-3479-1802. 참 장식이 화려한 피스로, 0.89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수놓은 펜더드 카르띠에 링 2천5백만원대 **카르띠에**, 1566-7277. 0.5캐럿 시트린 쿼츠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마르케르타 네크리스 5백47만원 **다이아나**, 02-310-1533. 부채 모티브에 카보라전을 더한 디바스 드림 이어링 3백만원대 **불가리**, 02-2056-0170. 밴글 모티브로 한 구조적인 실루엣이 돋보이는 세팅 보헤미안 라피스 라줄리 투헤드 링 6백만원대 **부세몬**, 02-6905-3322. 에디터 **이주이**





성세한 우빙 디테일이 돋보이는 드레곤 디퓨전백 49만5천원, 부드러운 뉴이투스 실크 스카프 18만5천원, 다이아몬드 캐장스카시링스라운 파브리카오 비티 신들 73만5천원 모두 폼스튜디오.



for her.
for him

컨템퍼러리 감성을 기반으로 우아하고 세련된 룩을 선보이는 폼스튜디오와 클래식한 남성을 위한 토털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폼맨즈라운지가 제안하는 5월 기프트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choi min young



1 제스퍼 스카프 33만5천원, 2 허튼 랩스 체인 브레이슬릿 31만원, 3 실용적인 디-웨이브 토트백 36만5천원, 4 세 가지 패턴이 조화로운 피에르 루이스 메시아 스카프 14만5천원, 5 클래식 플로팅 록키 PK 셔츠 25만원, 6 캐주얼 감성의 앤더슨 우빙 벨트 16만5천원, 7 가죽을 덧댄 그라프 링크 벨트 트레이크이 13만5천원, 모두 폼맨즈라운지, 문의 02-3438-6142 8 목에 반짝임을 더해줄 티파노텔로 네크리스 21만5천원, 9 선드레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룸 CAMILA 리바이 햇 33만5천원, 10 부드럽고 가벼운 에버리 카탈라니 드레스 73만5천원, 11 고급스러운 새끼를 자랑하는 엘비 토트백 79만5천원, 12 주얼 장식이 눈부신 미스티크 슬라이드 39만5천원, 모두 폼스튜디오, 문의 02-3449-5359 에디터 이지이



radiance treat

5월의 따사로운 봄별만큼이나 투명하고 눈부신 피부로 가꾸주는 수블리마지 루미에르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피부 속까지 밝혀주는 궁극의 광채 수블리마지 루미에르 컬렉션은 깨끗하고 밝게 빛나는 피부로 가꾸주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단순히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브라이트닝 케어가 아니라 피부 바탕을 건강하게 다지고, 피부 본연의 광채와 윤기를 되찾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은 바닐라 플라네놀리아 PFA와 인텔리스 성분이다. 먼저, 마다가스카르의 그린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바닐라 플라네놀리아 PFA는 사철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분으로, 항산화 효능이 탁월해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바닐라 플라네놀리아 고투리에서 추출한 워터 성분은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가 회복 프로세스를 강화해준다. 인텔리스 추출물은 균일한 피부 톤을 책임진다. 알프스 산지에서 재배한 인텔리스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피부의 세포 방어 메커니즘, 즉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키는 단백질을 활성화해 피부 톤을 한결 밝게 개선하고, 결점 없이 고른 피부결을 완성한다.

피부에 건강한 빛을 되찾아주는 스킨 리추얼 바닐라 플라네놀리아 PFA와 인텔리스 성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수블리마지 루미에르 컬렉션 제품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단독으로 사용해도 만족스럽지만 스쿠알 세럼, 크림을 3단계로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가 배가된다. 먼저, 스쿠알이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블리마지 라 로씨옹 루미에르 엑스폴리안으로 첫 단계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솜에 적서 피붓결을 따라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흰 자외선 무 위타와 풍부한 당 성분, 미세입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AHA 성분이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피붓결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정돈해 다음 단계에서 활성 성분이 깊숙하고 빠르게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음으로 세럼 타입의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를 발라 이마, 목에 소량 바른 후 손으로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퍼 바른다. 식물성 글리세린과 영양감 넘치는 시아버터가 부드럽게 스며들어 피부에 성세하고 신선한 느낌을 남긴다. 바르는 즉시 채워지는 영양 성분 덕에 피붓결이 한결 매끄러워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여겨 미세한 잔주름과 피멍이 작은 결점을 가려주고 피부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수블리마지 라 크림 루미에르로 스킨 리추얼을 완성한다. 풍부한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건조하던 피부는 한결 편안해지며, 시아버터와 스쿠알린 성분 등이 영양을 공급해, 생기와 활력을 되찾게 한다. 각 단계가 어우러진 세 가지 스쿠알이의 완벽한 조합 덕에 빛과 탄력으로 가득 찬 피부를 마주할 수 있다. 더불어 휴대가 편한 미스트 타입의 수블리마지 라 브림은 낮 동안 자진 피부에 달콤한 휴식을 준다. 바닐라 플라네놀리아 워터의 항산화 성분이 자진 피부를 다독여주고, 실크나무 추출물이 활력을 회복시킨다. 이어 세 가지 히알루론산 복합체가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름과 잔주름을 개선한다. 메이크업 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든 촉촉하고 생기 넘치는 완벽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18ml 트와스트 & 스프레이 + 리필용 3개 32만5천원. 에디터 이지이



(왼쪽부터) 수블리마지 라 로씨옹 루미에르 엑스폴리안 125ml 17만3천원, 수블리마지 레쌍스 루미에르 40ml 62만5천원, 수블리마지 라 크림 루미에르 50ml 52만5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 sponsored by CHANEL

all your family

온 가족이 함께 마시는 완전한 단백질.
하루 한 컵으로 간편하게 면역을 챙기는 방법이다.



피부와 근육은 물론 머리카락, 손톱, 혈액까지 우리 몸은 단백질 그 자체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바이러스와 세균 등 외부 침입에 대항하는 항체, 호르몬, 효소를 만드는 것 역시 단백질이다. 암 환자들이 면역력과 직결되는 백혈구 수치를 올리기 위해 양질의 고단백 음식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백질은 노화 현상을 예방하고 우리 몸이 면역 체계를 정비해 회복할 수 있게 돕는다. 그러므로 면역이 중요한 지금, 무엇보다 단백질 섭취를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단백질이 부족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종합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 영양제는 챙기면서 정작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인 단백질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한다. 단백질은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고 있을까? 단백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은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일이다.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함유한 필수아미노산이 다르고 체내 소화 시간도 달라 고기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충족되지 않는다. 게다가 육류는 소화하기 어려워 흡수율이 높지 않은 데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를 통해 단백질을 흡수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또 오늘날의 육류는 항생제를 포함하고 있어 건강한 먹거리라 부르기 어렵다. 어류와 해산물은 어떨까? 불행히도 이제 바다의 식재료는 중금속과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필요량 이상의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 유당불내증이나 호르몬성 질환이 있다면? 우유와 치즈는 식탁에서 제외될 것이다. 현

대인의 건강은 결국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흡수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을 영양제로 섭취하듯 단백질 역시 건강하고 안전한 보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10대에는 당연히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다. 활동량이 많고 근육운동을 즐기는 20대와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감소하며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30대도 마찬가지다. 30대 이후부터 근육이 매년 1% 정도 사라지는데, 60대에 이르면 약 30% 감소한다. 나이가 들수록 근 손실 속도는 빨라지고 면역력과 체력 저하는 당연한 수순이다. 40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연령층이 다양한 온 가족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안전한 단백질을 사수하는 것! 앞서 말했다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함유한 필수아미노산에 차이가 있어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중에 넘쳐나는 단백질 영양제 중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가 눈에 띄는 이유다.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6:4로 균형을 맞추어 다섯 가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가 특별한 점은 산양유 단백질을 소화와 흡수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산양유 단백질은 우유와 달리 소화를 방해하는 α-s1 키제인 단백질이 없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β-락토글로불린이 적어 부드럽게 소화된다. 또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의 먹이인 울리



고당 함량도 높아 유아나 성인은 물론 평소 유청 단백질을 소화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게다가 소화 흡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내 유익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기능을 지닌 프리바이오틱스인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하고 유당도 자사 우유 대비 1/5 수준으로 낮췄다.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는 단백질 보충, 장 건강과 더불어 뼈 건강, 에너지 대사, 면역까지 고려했다.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한 칼슘과 신경,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을 이상적

비율인 2:1로 배합하고 칼슘과 인 흡수를 돕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비타민 D와 정상적인 세포분열,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을 더했다.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판토텐산, 피부와 연골 결합 조직 생성에 중요하나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인 콜라겐과 류신도 빼놓지 않았다. 혈관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비타민 B₆도 함유했다. 이렇게 완벽한 조합의 영양소들은 안전함에서도 완벽하다.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의 모든 재료는 비유전자 변형 식품과 유대교 율법에 의해 식재료와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음식임을 인증하는 코서 마크,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할랄 인증을 받은 단백질 원료를 사용했다. 또 합성 감미료와 합성 색소를 일절 사용하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열로 인한 영양 손실을 줄여주는 드라이 블렌딩 공법, 경도와 함량을 균일하게 유지하도록 입자 하나하나를 그레놀화하는 '그레놀 & FB 공법'을 사용해 맛과 성분이 균일하다.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는 캔, 스틱, 액상형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캔 포장은 산소·수분·광원 차단 효과가 우수해 영양소 파괴 없이 안전하게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이토록 완벽한 한 컵의 단백질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라면 영양 보충이 필요한 성장기 아이들과 과도한 업무에 지쳐 면역력이 떨어진 아빠, 엄마, 노화 예방과 활력이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고 맛있게 균형 잡힌 영향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2-2049-2238



© sponsored by LDONG FOODS

editor's Pick

부쩍 건조해지고 기온이 높아진 날씨에 더없이 적합한 이달의 뷰티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베 레쉬 포텐 비건 마스크**라 꽃가루에 민감한 눈가 피부에 도이이 메이크업을 못 하면, 순한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유해 성분과 파라벤을 함유하지 않은 이 착한 마스크라는 속눈썹을 연장한 듯 한 울 자른처럼 고르게 연출해준다. V자형 스키마 브러시가 풍성한 촉감을 선사하고 물과 피자에 강한 필름 막을 형성해 마스크에서 올라오는 습기는 물론, 잠자 놓이자는 온도에도 끄덕없다. 10g 3만7천원. 문의 1544-5114. *by 에디터 이주이*

타티르 오카비탈 헤어 미스트 건조한 날씨 때문인지 유독 푸석해진 머릿결이 고민인 에디터. 카멜리아 오일을 함유한 이 제품은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주고 윤기나게 가꿔준다. 말린 머리에 뿌려 수분감을 더하거나, 손질 전 헤어 브러시에 뿌려 사용하면 된다. 은은하면서도 관능적인 로즈와 플라워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향 때문에 우아한 분위기 도 안을 수 있다. 30ml 7만5천원. 문의 02-3479-6049. *by 에디터 이주이*

이르미니 뷰티 투고 쿠션 마스크 #2 일찍, 자율력, 카바릭,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쿠션 파운데이션. 비즈는 동시에 촉촉한 촉감을 느낄 수 있고, 보습하게 마무리되어 피부 표면의 갈라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왓부터 필요한 향기를 따는 에몰리엔트는 성숙한 티셔츠를 오르는 눈 밑이나 코팅을 등 골곡진 부위에 세세한 표현이 가능하다. SPF 23 PA+++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겸비했으며, 디어석 무너에서 영감을 얻은 감각적인 케이에 담았다. 케이스 2만1천원, 15g 라필 6만2천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이주이*

스쿠 큐보트 립 블루이드 #104 동침 없이 꾸미지 않게 매끄럽고 부드럽게 발린다. 글로와 포그, 두 버전으로 선보이는데 그중 #104는 오일 성분을 눌러 촉촉하게 빛나는 글로, 얇은 글드 핏이 생생하게 반짝이는 브론즈 레드 컬러로 밝은 자제의 느낌을 담았다. 6.6g 6만2천원. 문의 02-6905-3369. *by 에디터 장라윤*

샤넬 코르 마드오케일 젤 보타피 헤어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2in 1 이어템. 기법과 성숙한 기쁨이 만들어내는 촉촉함과 촉촉함, 그리고 은은한 향이 사후하는 시간 내내 기분을 업시켜준다. 100ml 5만4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장라윤*

시슬리 블랙 로즈 뷰티라인 에센스 무엇보다 향이 강하지 않고, 끈적임 없이 알고 빠르게 스며들어 사후한 후 등에 바로고 바로 옷을 입어도 찝찝하지 않다. 오일처럼 부드럽게 몰락하며, 특히 300도로 유언하게 움직이는 에몰리엔티가 눈가 주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어 눈가 한결 편안해진 듯느낀다. 20ml 1만1천원. 문의 080-549-0216. *by 에디터 장라윤*

다들 간췌 토랄 슈퍼 포텐트 아이 세럼 눈가 주름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20대 후반. 린트자 추출물이 눈가 피부에 활력과 생기를 주고, 호미 추출물이 피부 탄력을 균일하게 증대하며, 눈가 탄력을 증진시킨다. 허블백문신이 풍부한 피부에 촉촉한 수분까지 채워준다. 특히 300도로 유언하게 움직이는 에몰리엔티가 눈가 주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어 눈가 한결 편안해진 듯느낀다. 20ml 1만1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이주이*

구찌 뷰티 스틸링 광우로 데이오 #스쿨라 자율력이 좋은 유퍼프루프 콜 아이리어나너 펜슬,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텍스처를 갖춘 포플러 덕분에 미끄러져 쉽게 그릴 수 있다. 총 6개 세이브 중 #스쿨라는 짙은 갈색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준다. 0.34g 4만2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장라윤*

라프라피어 퓨어 골드 레인스 크림 골드 잔자 입자가 블루 라이트를 흡수하고, 옐로 빛을 원으로 반사해 피부에 윤광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쏘뽀한 크림 생분이 피부에 부드럽게 밀려 즉각적으로 수분과 생기를 부여한다. 30일 아침처럼도 꾸준하게 관리하니, 피부가 눈에 띄게 밝고 맑아진 듯하다. 라필 향의 리틀레니샤를 디자인으로 한경까지 생략한 착한 이어템. 50ml 1백1만2천원. 문의 02-511-6626. *by 에디터 이주이*

조 라벤스 베스 & 샤워 젤 #포멜로 요즘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하는 이유 중 8할은 이 제품 덕분이다. 화이트 로즈와 레몬 잎이 어우러진 상그라운 향을 지닌 샤워 젤로 피부를 부드럽게 클렌징해주고, 자연스러운 향기를 남긴다. 일교차에 염증을 함유해 사후한 피부 진정 효과도 뛰어나다. 275ml 6만2천원. 문의 02-3447-3600. *by 에디터 이주이*

바이레도 오픈 스카이 오 퍼프 여행의 출발과 도착지 사이, 그 텅 빈 공간을 탐험하는 향이라는 문구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강렬한 포멜로 향으로 사후해 매콤한 블랙 피파와 로망틱한 우디 향이 팔로 신도가 자극적이고 매력적이다. 공허한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열정 가득한 여행의 기대감을 담은 듯하다. 100ml 3만1천원. 문의 02-3479-1688. *by 에디터 장라윤*

영투리 코어 파워 시트 마스크 아침 샤워 후 보타피를 뿌리고 이렇듯 창기는 10~15분 정도의 시간에 붙이고 15분 후 제거한다. 초유티팅팅 시트가 얼굴 라인을 따라 완벽하게 붙는데, 끈적임 없는 내용물이 착한 스며들어 보습력이 촉촉하게 케어한다. 피부 컨디션 재화로 보습이 필요할 때 이러한 응급 처방이 있다. 25mX6.4만2천원. 문의 1588-7667. *by 에디터 장라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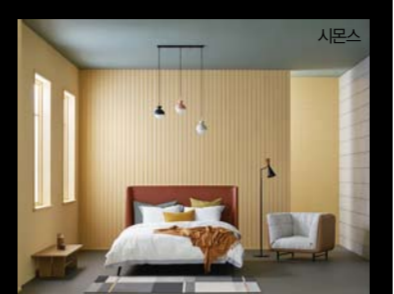
존버토스 아티스 블랙 맑은 수트 차림의 신사가 붐비 끝난 근사한 향을 담았다. 바질과 회향, 레몬을 조합한 신뜻한 시트러스 향으로 사후해 고수와 내림, 재스민과 생강이 어우러진 맑은 미들 노트가 세련된 느낌을 전하고, 마스코, 파플러와 우디, 가족으로 마무리되는 묵직한 노트가 짙은 여운을 남긴다. 125ml 1만2천원. 문의 080-363-5454. *by 에디터 이주이*



SHOWROOM



LIFESTYLE



시몬스 웨딩 프로모션 최상의 숙면을 목표로 하는 시몬스에서 특정 매트리스 구매 시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다양한 시몬스 제품을 선착순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예비부부 사이에서 혼수 1순위로 손꼽히는 시몬스 매트리스는 고유의 포켓스프링이 인체의 곡선과 움직임에 따라 빈틈없이 기민하게 반응하는 기술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선사한다. 문의 1899-8182

뉴트리엔 비타수벨 불규칙한 식사와 육류 위주 식습관으로 오메가3 섭취의 중요성이 날이 커지고 있다. 뉴트리엔의 비타수벨에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알타지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는데, 체내 흡수율을 높인 최신 기술을 사용해 소화 및 흡수가 용이하도록 개발되었다. 알타지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과 혈행 개선, 건조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3중 복합 기능성 건강 기능 식품이다. 문의 070-4077-1919

블랑팡 트리뷰브 투 피프티 패덤즈 역사적 타임피스 중 하나인 피프티 패덤즈 노 레디에이션을 재해석했다. 초창기 피프티 패덤즈 모델의 전형적인 눈금을 올린 단방향 로테이팅 베젤과 수심 300m 방수, 그리고 4일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지름 40.3mm 케이스는 스틸 소재로 섀프 외양인 무브먼트인 블랑팡 칼라버 1151을 탑재했다. 문의 02-3213-2261

IWC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1994년부터 파일럿 컬렉션의 주력 제품으로 사랑받아온 크로노그래프 워치가 인체 공학적인 케이스 지름을 41mm로 변경하면서 장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블루와 그린 다이얼에 각각 레드 스텝과 스틸 브레이슬릿을 조합해 총 4가지 버전을 선보인다. 문의 1670-7363

오메가 씨마스터 아이유아 테라 케이스 지름 34mm의 시마스터 모델은 스틸에 18K 세드나™ 골드를 매치했고, 폴리싱 처리한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을 장착했다. 스위스 계측학연원(METAS)에서 실시한 업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를 통과한 오메가 코-엑 시질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라버 8800으로 구동한다. 11개의 루비 세팅 이워 마카가 어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문의 02-3467-8632

구찌 25H 구찌가 브랜드 탄생 1백 주년을 맞아 하이워메이킹 사업의 시작을 발표했다. 그중 25H는 피퍼처럼 손목에 밀착될 수 있도록 가벼운 타치감을 제공하는 울트라 슬림 케이스를 적용해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린다. 스틸과 다이아몬드 파페 세팅 모델로 출시한다. 문의 02-3277-0184

스위로브스키 정글비츠 맹수들, 열대 과일, 열대 식물들을 모티브로 삼은 피스들은 크리스탈 오브재와 나먼트, 그리고 마그네트를 이용해 원하는 대로 믹스매치할 수 있다. 다양한 크리스탈로 선행하고 경



쾌한 트로피컬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자연을 테마로 했으며 다른 홈 컬렉션 제품들과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문의 02-6402-1725



론진 울트라비타 컬렉션 싱그럽고 화사한 봄을 연출시키는 오렌지, 라임, 옐로, 코랄 같은 컬러가 돋보이는 가죽 스트랩을 매웠다. 퀵 스위치 시스템으로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스트랩을 바꿀 수 있으며, 자칫 밟힐 수 있는 룩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무드를 더한다. 문의 02-3479-1940

JEWEL & WATCH

FASHION



브리오니 BP Signature 브랜드 앰배서더인 전설적인 배우 브래드 피트와 칼라베리니에 완성한 캠프 컬렉션을 공개했다. 최상의 테일러링 정신과 브래드 피트의 독보적인 개성을 결합해 탄생한 이 컬렉션은 이브닝 재킷부터 슈트까지 폭넓은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2-3274-6483

에르메스 가방 아이기 놀라운 형태와 독특한 착용 스타일로 풍부한 유산을 이어가는 백을 소개하는 에르메스 가(에르메스, 가방 아이기) 전시를 성수동 디뮤지엄에서 5월 22일부터 6월 6일까지 개최한다. 희귀하고 가치 높은 50여 개의 소장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시작하고 기능적이며 오랜 세월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정인 정신과 무한한 상상력이 담긴 가방의 세계로 초대한다. 문의 02-542-6622

폴 스튜디오 크리스탈 레더 팔찌 빈티지한 팬던트와 화려한 크리스탈이 조화를 이루는 히스토리 바이 달란(History by Dylan) 크리스탈 레더 팔찌를 소개한다. 1900년대 엔틱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만든 브로치에서 영감을 받은 이 팔찌는 데이지와 클로버, 화살표, 모티브 팬던트로 독특함을 더했다. 수작업으로 제작하며 크로카딜 가죽을 사용해 고급스럽고, 탈착 가능한 팬던트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문의 02-3449-5359

브루넬로 쿠차렐리 여성 라벤 스킨 2021 S/S 시즌을 맞아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라벤 수트를 제안한다. 편안한 실루엣으로 여유로운 도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자연과 웰빙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화두로 떠오른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 차분함과 우아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3448-2931

일렉산더 맥퀸 원더 부츠 영국 핑크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가죽 부츠를 선보인다. 과장된 형태의 라바 롱과 핑크이 도는 카트 레더 소재가 특징으로 장식 없이 감성적 개성을 결합해 탄생한 이 컬렉션은 이브닝 재킷부터 슈트까지 폭넓은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2-6205-3472

보스 라셀 에슬레틱 컬렉션 젊고 신성한 두 브랜드 라셀과 보스가 합했다. 농구에서 영감을 받아 장난스럽고 재미있게 풀어낸 컬렉션은 로커 롱과 코트를 배경으로 시트 핑크로 선정된 농구 팀을 표현했다. 레트로 무드의 보스라셀 로고가 새겨진 다양한 유니섹스 스타일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15-4088

토즈 T 타이라스 백 토티 디자인 아이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T 타이라스 백은 최상급 가죽으로 제작하며, 빈티지한 감성이 묻어났다. 라피아로 구상한 이번 시즌 스페셜 라인에 내추럴 페블릭 소재를 사용해 캐주얼하고 여유롭다. 무게도 가벼워 여름을 데일리 백으로 잘 어울린다. 문의 02-3438-6008



WILLOW SMITH.
MEMBER OF THE PASHA
COMMUNITY ON CARTIER.CO.KR



PASHA DE *Cartier*

